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7355

2009 년 2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15세기 고소설의 담당계층과 소설관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나 지 영

15세기 고소설의 담당계층과 소설관

A Study of the People and Views of Classical Novels in the 15th Century.

2009 년 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나 지 영

15세기 고소설의 담당계층과 소설관

지도교수 김 수 중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8 년 10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나 지 영

나지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 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 수 인

2008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1

제2절 연구사 ····· 2

제2장 15세기 고소설의 담당계층 구분 ····· 5

제1절 군왕계층 ····· 5

제2절 사대부계층 ····· 9

제3절 方外人계층 ····· 13

제3장 15세기 고소설 담당계층의 소설관 ····· 18

제1절 군왕의 소설관 ····· 18

1. 교훈성의 입장 ····· 18

2. 自取의 입장 ····· 21

3. 정치적 수단의 입장 ····· 23

제2절 사대부계층의 소설관 ····· 25

1. 창작의 측면 ····· 26

2. 수용의 측면 ····· 28

가. 一張一弛의 입장 ····· 28

나. 自取의 입장 ····· 31

다. 博學의 입장 ····· 32
라. 用心의 입장 ····· 36
3. 정치적 수단의 입장 ····· 37
제3절 方外人의 소설관 ····· 44
1. 교훈성의 입장 ····· 45
2. 심리적 정화의 입장 ····· 48

제4장 결 론 ····· 51

참고문헌 ····· 54
부 록 ····· 56

표 목 차

표1. 부 록 ····· 56

ABSTRACT

A Study of the People and Views of Classical Novels in the 15th Century.

Jee-young Na
Advisor : Prof. Su-jung Kim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the 15th century, novels were formed to divide and to become very popular. Before the 15th century, novels were thought to be records of idle talk and to be of no value compared with Confucian classics since the era of pre-Chin and to inherit the concept in Korea as well. In the 15th century, Kim Si-seup wrote 『Keummosinhwa』 to publish the Buddhist Hangul novel for the first time and to specialize folk story and to make it popular. At that time, novels made appearance for the first time to be very much important in the Korean novel history. In the paper, novels made appearance in the 15th century after dark age of novel history because novelists wrote and had point of view of novels. Not only the ones who wrote novels in the 15th century but also view of novels was not researched enough because of theory of denial of novels that was commonly adopted in the era of former half of Chosun Dynasty: The theory should make change to take actions against affirmative situation. In accordance with such a condition, the author examined not only the ones who wrote novels in the 15th century but also their point of view of novels based on literature of novels at that time.

The ones who wrote novels in the 15th century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in other words, kings, scholars and generals, and men of noble character, etc. The kings liked to read novels as readers, and the scholars and generals read and wrote novels, and men of noble character had position of readers as well as writers. In the 15th century, point of view of novels was based on theory of denial of novels in accordance with concept of novels at that time to defend novels passively from time

to time.

The three groups had point of view as follow:

The kings defended novels passively from point of view of teaching, self-production and political means, etc. Considering political situation at that time, however, novels were used not for the genre but for political means. The scholars and generals had not only Kiyangron (being impatient to write) from point of view of writing but also good management, self-production, erudition and attention, etc from point of view of reading, so that they defended novels passively. And, the kings had ideas of political means on novels that was found in 『Yuyangjapjo』 and 『Pilwonjapki』 of both Hunkupa and Sarimpa of the scholars and generals. The materials were used to attack and criticize the other party by using novels depending upon political situation when both Hunkupa and Sarimpa fought at politics each other not to criticize novels as a genre of the literature. The men of noble character had point of view of novels: For instance, Kim Si-seup thought of novel values positively by his writings from point of view of teaching as well as psychological purification.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5세기는 소설사적으로 '성립기'에 해당하며 본격적으로 소설이 분화되고 성행하게 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전까지 소설은 중국 先秦時代이래로 經史와 상대되어 경사처럼 載道之文일 수 없고 雜談·雜說을 기록한 가치 없는 글이라고 전해져 왔으며, 이러한 개념은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어 이어져 왔다.[1] 15세기의 소설에 대한 개념은 짤막한 민담류의 이야기로 이와 같은 관념은 소설을 稗說, 稗官野乘, 稗官小說, 雜說, 古談 등이라 하는 경우와 상통하며 패관들에 의하여 약간의 변용이 가해진 것을 소설이라 칭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2] 15세기는 한국문학사에서 창작소설의 발전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금오신화(金鰲新話)』의 창작과 더불어 한글창제로 인한 최초의 불교계 한글소설의 출현 등 본격적인 소설의 등장을 보여준다. 또한 고려 말에 시작한 패설류가 분화되며 성행하게 된 시기로 소설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시기에 서사문학사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금오신화(金鰲新話)』는 중국 소설의 모방작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작품의 배경, 주인공, 주제 그리고 작가의식에 있어 독창성이 역력하며 창작소설로서의 면모가 뚜렷하여 소설사적으로 중요시 된다. 불교계 한글소설의 등장은 세종의 한글창제와 더불어『석보상절(釋譜詳節)』,『월인석보(月印釋譜)』,『석가여래십지수행기(釋迦如來十地修行記)』등의 다수의 불교 문헌의 출간과 함께 형성되었으며 본격적인 소설의 등장을 보여준다. 고려 말에 시작된 패설류의 분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

1) 송진한, 「朝鮮朝 兩班士大夫層의 小說觀 考察」,『개신어문연구』제7집, 충북대학교, 1990, p.201.

2) 중종 대의 어숙권은『패관잡기(稗官雜記)』에서 우리나라의 소설이라 하여『금오신화(金鰲新話)』와 함께 『파한집(破閑集)』,『필원잡기(筆苑雜記)』,『촌담해이(村談解頤)』,『육신전(六臣傳)』,『매계총화(梅溪叢話)』,『표해기(漂海記)』,『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등 다수의 문헌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화집, 설화야담집, 수필집, 전기집, 견문기 등이 모두 속해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경우는 서거정(徐居正)으로 그는『동인시화(東人詩話)』,『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필원잡기(筆苑雜記)』등을 저술함으로써 패설류의 하위 영역을 구별하였다.[3]

이와 같이 15세기는 소설사적 암흑기인 고려시대를 지나 본격적인 소설이 등장한 시기라 할 수 있다. 不經하고 雜談·雜說을 기록한 가치 없는 글이라 여겨지던 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패설류가 분화되고 성행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당대의 소설을 담당했던 담당층과 그들이 소설을 보는 시각인 소설관에 근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15세기의 소설 담당층과 소설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히 당시 조선전기의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小說輕視觀을 통념으로 전제한 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설부정론이 긍정적 입장에 대응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정리한 바를 자료를 통해 구체화하고 그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생각된다.[4] 따라서 본고에서는 15세기의 공적, 사적 고소설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15세기 고소설의 담당층을 알아보고 그들이 소설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하는 소설관을 정리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여기서 고소설 관련 자료라 함은 고소설과 관련된 제반 문헌 자료들을 의미하며 본고에서 쓰인 담당층의 개념은 기존의 논의에 입각하여 용어화된 담당층[5]의 개념과 동일하다. 본고에서는 공적인 기록과 사적인 문헌인 歷史書, 序跋, 雜錄, 詩들을 주로 다루도록 하며 본문의 문헌자료는 편의상『한국고소설 관련 자료집Ⅰ』의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6]

제2절 연구사

고소설과 소설관에 관련된 연구는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

---

3)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Ⅰ』, 태학사, 2001, p.15.

4) 오춘택,「조선전기의 소설의식」,『어문논집』23권, 고려대학교국어국문학연구회, 1982, p.545.

5) 조동일,『제4판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2005, pp.37~38.
문학을 창조하고 수용하는 집단이 문학 담당층이며 문학 담당층은 여럿이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한다. 사회의 지배층, 그 비판 세력, 피지배 민중이 모두 문학 담당층으로서 각기 그 나름대로의 구실을 하면서 서로 경쟁했다.

6) 참고를 위해 문헌의 말미에 15세기 자료 일람표를 첨부하기로 한다.

지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15세기는 그 자체로서 연구되기보다 조선전기 혹은 후기에 관한 연구의 일부나, 조선시대 전반에 거친 논의의 한 부분으로 연구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와 조선전기 소설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당시의 소설의식에 관한 연구와 소설비평에 관한 연구 등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본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로는 오춘택[7]의 조선전기 소설의식을 다룬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당시 조선전기의 소설관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 업적이 없는 것을 밝히며 조선전기의 소설관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연구 자료로 삼아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반까지의 시대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실록에 보이는 소설논쟁과 소설적 문헌의 서와 발을 그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통해 작자의 편찬 동기나 저작의도를 발췌하며 그들이 소설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고 그 주장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시대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조태영[8]은 조선전기 문학관의 역동과 소설비평의 진전을 주제로 하여 조선전기의 고전소설비평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설의 문예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불우한 문인의 우의에 내포된 현실과 자아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인식, 거기에 담긴 소설장르에 본질에 대한 기본 인식 같은 것들이 이 시기 소설비평에서 얻어진 성과라 보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서거정의 '消遣'의 개념과 이승소의 '소탕흉회'의 효용, 김시습의 전등신화에 대한 소설의 심미적 가치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간호윤[9]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소설비평연구를 통해 조선시대의 공적기록, 개별 문헌들을 분석하여 조선시대 소설비평을 재검토하였다.

담당층에 관련된 연구는 이선이[10]의 '초기 자유시 담당층의 정체성 모색과 그 의미'를 다룬 연구, 정출헌[11]의 '판소리 담당층의 변화에 따른 19세기 판소리사와 중고제의 소멸'등과 같이 시, 판소리 등의 여러 문학 장르에 거쳐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또한 문학에 관련되어서는 박경주[12]의 '고려후기 문학

---

7) 오춘택, 앞의 논문, 1982.

8) 조태영,「조선전기 문학관의 역동과 소설비평의 진전 」,『고전문학연구』26권, 한국고전문학회 , 2004.

9) 간호윤,「조선시대 소설비평 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 논문, 2001.

10) 이선이,「초기 자유시 담당층의 정체성 모색과 그 의미 - 김억, 주요한을 중심으로 -」,『국제어문』26권, 국제어문학회, 2002.

11) 정출헌,「판소리 담당층의 변화에 따른 19세기 판소리사와 중고제의 소멸」,『민족문화연구』31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12) 박경주,「고려후기 문학 담당층의 전개양상과 경기체가 -무신정권기 문인층에서 여말 신흥사대부로의 변화를 중심으로」,『국제어문』25권, 국제어문학회,

담당층의 전개양상과 경기체가에 관한 연구'등이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담당층을 다룬 연구에서는 고소설과 관련된 연구가 적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때문에 본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고소설의 담당층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소설관에 관련된 연구는 소설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으로 본고와 관련이 깊은 연구로는 송진한[13]의 조선조 양반 사대부층의 소설관 고찰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는 조선개국이래부터 甲年更張 무렵까지 문헌 속에 나타나는 소설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소설관을 정리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소설을 배격하는 입장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소설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나타나는 소설관의 변천을 정리하였다.

김광순[14]은 조선조 유학자의 소설관에 대한 연구에서 문학의 기능에 대한 유학자들의 인식변화에 따라 변모되는 그들의 소설관과 그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를 위해 소설에 대한 유학자들의 생각을 긍정적, 부정적, 혹은 둘이 상충되는 것으로 가설을 세워 이것을 각각 긍정적, 부정적 시각 혹은 소설관의 양면성이라는 題名下에 가설의 검증과정을 거쳐 조선조 유학자들의 소설관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설관의 변모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 연구로써 기존의 소설 배격론, 극복이라는 단선적 논의를 극복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유학자들의 소설관에 국한된 연구이며, 15세기만을 다룬 연구가 아님을 볼 때 15세기 고소설의 담당계층과 소설관에 대한 연구와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15세기 고소설의 담당층과 소설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그 자체로서 연구되기보다 조선시대 전기, 혹은 조선시대 전반에 포함되어 다루어졌으므로 기존의 연구 중에 15세기 고소설의 담당계층과 소설관이라는 주제에 들어맞는 연구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2.

13) 송진한, 「朝鮮朝 兩班士大夫層의 小說觀 考察」, 『개신어문연구』제7집, 충북대학교, 1990.

14) 김광순, 「조선조 유학자의 소설관」, 『古小說 硏究』1권, 한국고소설학회, 1995.

제2장 15세기 고소설의 담당계층 구분

15세기 소설의 담당계층은 이전에 비해 확장되었지만 사대부 부녀자계층이 독자층으로 편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군왕, 사대부 지식인, 훈구파 관료, 사림파 관료 등등으로 대부분의 담당층이 한문소양이 있는 남성들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물론 한글창제와 더불어 여성 독자층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문헌상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소설의 대부분이 한문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의 담당층은 대부분 한문소양을 가진 지식인 남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1절 군왕계층

15세기의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에는 소설과 관련된 군왕들의 일화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 임금께서 호조참판 이선(李宣) · 집현전 부수찬(副修撰) 박팽년(朴彭年) · 저작랑(著作郞) 이개(李塏) 등에게 명하여 말하셨다.
> “옛사람이 당(唐) 명황(明皇)과 양귀비(楊貴妃)의 일을 그린 것이 꽤 많다. 그러나 재미로 즐기는 거리에 불과하였다. 나는 개원(開元) · 천보(天寶)의 성패(成敗)한 사적을 채집하여 그림을 그려서 보고자 한다. 예전 한나라 때에 승여(乘輿)와 악좌(幄坐)와 병풍(屛風)에 주가 취하여 달기(妲己)에게 기대어 앉아 긴 밤의 즐거움을 누리던 것을 그렸다 하니, 어찌 세상 군주들로 하여금 전철(前轍)을 거울삼아 스스로 경계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명황(明皇)은 영명(英明)한 군주라고 불렸었는데, 만년에 여색에 빠져 패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처음과 끝이 다름이 이와 같은 경우는 여지껏 없었다. 월궁(月宮)에 놀았다든가, 용녀(龍女)나 양통유(楊通幽)를 보았다든가 하는 일 같은 데 이르면, 지극히 허황하고 망령되어 글로 쓸 만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자(朱子)도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다 ‘황제가 공중에서 귀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적어서 명황(明皇)이 기괴한 것을 좋아하는 사실을 보였다. 무릇 이런 말들은 역시 국가를 소유한 자가 마땅히 깊이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편찬

하여라."[15]

위의 자료에서 세종은 『태평광기(太平廣記)』를 읽고, 내용 중에 주왕이 달기의 여색에 빠져 패망한 모습을 악좌와 병풍에 그려서 경계하였던 명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색에 빠져 패망함을 경계로 삼고자하며 『태평광기(太平廣記)』를 편찬하라 명하고 있다. 여기서 『태평광기(太平廣記)』는 漢나라부터 宋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전해지던 이야기를 모은 책으로 소설류의 서사로 분류되며 중국 설화 · 소설문학의 寶庫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에 수입되어 조선시대까지 많은 이들이 즐겨보았으며 조선 중기 이전에 축약본과 언해본도 등장하였다.[16] 즉 이 자료에서는 당시의 소설에 대한 經史처럼 載道之文일 수 없고 雜談 · 雜說을 기록한 가치 없는 글이라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군주의 위치에 있는 임금이 소설계통의 서사로 분류될 수 있는 『태평광기(太平廣記)』를 읽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볼 때 세종은 소설계통의 서사인 『태평광기(太平廣記)』를 읽었으며 이는 군왕계층이 소설의 담당층임을 알려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또 명하시기를, "『신비집(神秘集)』은 펴보지 말고 특별히 봉하여 올리라." 고 하셨다. 임금께서 그 책을 보고 말하시기를, "이 책에 실린 것은 모두 괴탄(怪誕)하고 불경(不經)한 이야기들이다."라고 하시고, 대언(大言) 유사눌(柳思訥)에게 명하여 이를 불사르게 하셨다. 그 나머지는 춘추관(春秋館)에 내려 보관하게 하셨다.[17]

위의 자료에서 태종은 『신비집(神秘集)』을 읽고 책에 실린 이야기들에 대해 '괴탄하고 불경하다.' 라고 비평하였는데 이것을 볼 때 태종은 내용에 대

---

15) 世宗 二十三年(1441) 九月 壬戌(29일), 世宗實錄 卷九十三
上命戶曹參判李宣 · 集賢殿副修撰朴彭年 · 著作郎李塏等曰 : "古人圖唐明皇 · 楊妃之事者, 頗多. 然不過以爲戲玩之資耳. 予欲採開元 · 天寶成敗之跡, 圖畵以觀. 昔漢時, 乘輿 · 幄坐 · 屛風, 畫紂醉踞妲己, 作長夜之樂, 豈非令世主鑑前轍, 以自戒耶? 明皇號稱英主, 而晩年沉於女色 以至於敗, 終始之異, 未有如此者也. 至若遊月宮, 見龍女 · 楊通幽等事, 極爲誕妄, 似不足書也. 然朱子於『綱目』亦書'帝聞空中神語', 以見明皇好怪之實. 凡此等語, 亦有國家者之所宜深戒也. 爾等其纂之."

16) 김근태, 「태평광기(太平廣記) 언해본(諺解本)에 삽입된 한시(漢詩)의 기능 고찰」, 『한문고전연구』14권, 한국한문고전학회, 2007, p.221.

17) 太宗 十二年 (1412) 八月 己未(7일), 太宗實錄 卷二十四
且命曰 : "『神秘集』, 毋得披閱, 而別封以進." 上覽其集曰 : "此書所載, 皆怪誕不經之說" 命代言柳思訥, 焚之. 其餘, 不春秋館藏之.

해 비평할 수 있을 만큼 『신비집(神秘集)』을 세밀하게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비집(神秘集)』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태종 17년(1417)의 기록을 볼 때 『신승전(神僧傳)』이 '여러 괴탄한 중의 요망한 말과 괴이한 행적을 모은 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신비집(神秘集)』 또한 『신승전(神僧傳)』과 유사한 소설류 일듯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18] 따라서 이 자료를 볼 때 태종 역시 소설류의 서사를 읽은 소설의 담당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임금께서 양성지에게 이르기를 "경은 『태평광기(太平廣記)』를 아는가? 『태평광기(太平廣記)』의 이야기를 해보시오"라 하셨다. 양성지가 상계하였다. "옛날 당나라 재상 소괴와 이교의 두 아들이 모두 어린 나이였을 때 중종이 불러서 앞에 두고 선물을 후하게 내려 주면서, '너희들이 읽은 글에서 어떤 일이 가장 좋던가?'하고 물었습니다. 소괴의 아들 정은 '재목은 먹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임금은 간함을 따르면 성군이 된다.' 고 하였고, 이교의 아들은 '아침에 물 건너는 사람의 정강이를 자르고, 어진 사람의 심장을 가른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중종이 '소괴는 아들이 있으나, 이교는 아이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웃으면서 "경은 일을 통하여 권계(勸戒)하는 자라고 이를 만하다." 고 말했다.[19]

위의 자료에서 세조는 양성지와 『태평광기(太平廣記)』에 수록된 이야기를 이용해 문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세조가 『태평광기(太平廣記)』에 수록된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통해 소설을 교훈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소설계통의 서사인 『태평광기(太平廣記)』를 자세히 읽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자료는 『태평광기(太平廣記)』가 이미 세조시대 군왕이 즐겨하는 이야기감이었음을 보여준다.

> 임금께서 전교하셨다. "그대들이 말한 바와 같이 『유양잡조(酉陽雜俎)』 등의 책이 괴탄하고 불경하다면, 『시경·국풍(國風)』과 『좌전(左傳)』에 실린 것은 모두 순정(純正)하다는 것인가? 근래에 인쇄하여 반포한 『사문유취

---

18) 간호윤, 앞의 논문, p.15.

19) 世祖 八年(1462) 一月 丙申(1일), 世祖實錄 卷二十七
上謂梁誠之曰 : "卿知『大平廣記』? 其語『廣記』中之言." 誠之啓 : "昔唐宰相蘇瓌 · 李嶠二兒皆童年, 中宗召置於前, 賜與甚厚, 因語曰 : '爾讀書, 何事最好?' 瓌子頲曰 : '惟木從繩則正, 后從諫則聖.' 嶠子曰 : '斲朝涉之脛, 剖賢人之心.' 中宗曰 : '蘇瓌有子, 李嶠無兒.'" 上笑曰 : "卿可謂因事勸戒者也."

(事文類聚)』또한 이와 같은 일들이 실려 있지 아니한가? 만약 '임금은 이러한 책들을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단지 경서만 읽어야 마땅하다는 것인가? 이극돈은 이치를 아는 대신인데, 어떻게 그 불가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였겠는가? 지난번에 유지(柳輊)가 경상감사(慶尙監司)로 있을 때 심접소(十漸疎)를 병풍에 서서 바치니, 의논하는 자들은 아첨한다고 여겼는데, 지금 말하는 것 또한 이와 같다. 내가 전일에 그대들에게 이 책들을 대강 주해하도록 명하였는데, 필시 그대들이 주해하는 것을 꺼려 이러한 말을 한 것이리라. 이미 불가함을 알았다면 애초에 어찌 말하지 아니하였는가?"[20]

위의 자료에서 성종은 사림파들의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대한 괴탄, 불경(不經)하니 읽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유양잡조(酉陽雜俎)』등의 책이 괴탄하고 불경하다면 『시경 · 국풍(國風)』, 『좌전(左傳)』에 실린 것들은 모두 순정(純正)하다 할 수 있는가를 문제삼았다. 또한 근래에 반포한 『사문유취(事文類聚)』 역시 같은 괴탄 불경의 서가 아닌가 하는 반론을 제시하며 만약 임금이 이러한 책들을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임금은 단지 경서만 읽어야 하는가라고 반박하였다. 이는 성종이 『유양잡조(酉陽雜俎)』, 『사문유취(事文類聚)』등을 읽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유양잡조(酉陽雜俎)』는 당나라를 중심으로 이전에 있었던 異事, 言語, 風俗과 관련된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으로 문장의 수식이 아름다워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음으로써 唐大小說과 잡조류의 대표작이 되었다.[21]

따라서 위의 자료를 볼 때 성종은 소설계통의 서사인 『유양잡조(酉陽雜俎)』의 독자였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군왕계층이 소설의 담당층임을 알려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군왕계층은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등의 여러 문헌 자료에서 『태평광기(太平廣記)』, 『신비집(神秘集)』, 『유양잡조(酉陽雜俎)』등 여러 소설류의 서사를 읽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독자로서의 면모는 드러나지만 소설의 창

---

20) 成宗 二十四年(1493) 十二月 戊子(28일), 成宗實錄 卷二百八十五
傳曰 : "如爾等之言, 以『酉陽雜俎』等書爲怪誕不經, 則『國風』·『左傳』所載, 盡皆純正歟? 近來印頒『事文類聚』, 亦不載如此事平? 若曰'人君不宜觀此等書', 則當只讀經書平? 克墩識理大臣, 豈知其不可而爲之哉? 前者柳輊爲慶尙監司時, 書十漸疎干屛, 進之, 議者以爲阿諛, 今所言亦如此也. 予前日命汝等略註此書, 必汝等憚於註解而有是言也. 旣知其不可, 則其初何不云爾?"

21) 손병국, 「한국설화에 미친 중국설화의 영향 -《유양잡조》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논문집』31권,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3, p.26.

작계층으로 나타난 자료가 보이지 않음을 볼 때 15세기의 군왕계층은 소설을 주로 독자로서 향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사대부계층

담당층의 확장과 한문소설들이 등장함에 따라 주된 지식인 계층인 사대부들은 15세기 소설의 담당층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들은 소설을 수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창작의 측면에서도 향유하는 모습을 보인다.

독자의 측면에서는 議政府의 관직자들부터 과거 문제를 출제하는 관리까지 다양한 계층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 의정부(議政府)에서 이조(吏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었다. "관작(官爵)이란 것은 덕이 있고 재능이 있고 공이 있는 사람을 대우하는 바입니다. (…중략…)『태평광기(太平廣記)』에 백이충(白履忠)이 고향에 돌아가기를 청하여 조산대부(朝散大夫)를 제수하니, 그 고을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집이 가난한데, 끝내 쌀 1두(斗)와 비단 1필(匹)도 받지 못하니, 비록 5품직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만 헛된 명예에만 그칠 뿐이다. 실제로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하니, 이충이 말하기를, '비록 녹봉은 받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5품의 집안으로서 종신토록 한가로이 지내며 요역(徭役)을 면하게 되니, 어찌 쉽게 얻는 것이겠는가?' 하였습니다. "[22]

위의 내용을 보면 의정부에서 아뢰기를『태평광기(太平廣記)』의 이야기 중 백이충(白履忠)이란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기를 청하여 조산대부(朝散大夫)를 제수하니, 그 고을 사람이 말하였는데 '이 사람은 집이 가난한데, 끝내 쌀 1두(斗)와 비단 1필(匹)도 받지 못하니, 비록 5품직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만 헛된 명예에만 그칠 뿐이다. 실제로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이는 百官을 통솔하고 庶政을 총리하던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인 의정부의 관직자들 역시 소설류의 서사로 분류되는『태평광기(太平廣記)』를 읽었을 뿐 아니라 특정 상황에 적절한 예시를 들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검토하며 읽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

22) 世宗 二十六年(1444) 六月 甲午(16일), 世宗實錄 卷一百四
議政府據吏曹呈, 啓 : "官爵所以待有德・有才・有功之人, (…중략…)『太平廣記』, 白履忠請還鄕, 授朝散大夫. 鄕人曰 : '吾子家貧, 竟不霑一斗米一匹帛. 雖得五品, 止是空名, 何益於實也?' 履忠曰 : '雖不祿賜, 且是五品家, 終身高臥, 免有繇役, 豈易得之也?' "

검토관(檢討官) 이창신(李昌臣)이 아뢰었다.

"양관의 의논은 필경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를 기록한 것은 그 일을 아름답게 여겨서입니다. 국가에서 선비를 뽑을 때에 유자들은 이전 기록을 답습한다고 하여 대개 기괴한 일을 가지고 책문(策問)을 써냈습니다. 지난해 중시책제(重試策題)에는, 빙잠(氷蠶)과 화서(火鼠)를 묻고, 귤(橘)은 회수(淮水)를 건너면 탱자가 되고, 담비는 문수를 건너면 죽는다는 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말은 『열자(列子)』나 『수신기(搜神記)』의 글에서 섞여 나온 것입니다. 유자들이 이 때문에 모두 궁벽한 글을 구하니, 만약 이를 그만두게 하지 않으면, 말류(末流)의 폐단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23]

이창신(李昌臣, 1449~?)은 조선 초기 문신으로 자는 국이(國耳), 호는 극암(克庵)이며 성종 5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수찬 · 교리 · 경연시독관을 지낸 인물이다. 위의 자료에서 이창신은 지난해 중시책제(重試策題)에 빙잠(氷蠶)과 화서(火鼠)를 묻고, 귤(橘)은 회수(淮水)를 건너면 탱자가 되고, 담비는 문수를 건너면 죽는다는 말을 제출하였는데 이 말은 『열자(列子)』나 『수신기(搜神記)』의 글에서 섞여 나온 것이라고 아뢰고 있다.

여기서 『수신기(搜神記)』는 중국 동진 시대에 편찬된 대표적인 志怪小說로[24] 이는 重試策題와 같은 과거 문제를 출제하는 식자 계층에서도 『열자(列子)』나 『수신기(搜神記)』와 같은 소설류의 서사를 보고 시험문제까지 출제하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창작의 측면에서는 사대부 계층들이 참여했음을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 『필원잡기(筆苑雜記)』, 『상절태평광기(詳節太平廣記)』, 『목은시정선(牧隱詩精選)』, 『촌담해이(村談解頤)』, 『촌중비어(村中鄙語)』등의 서발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자께서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이 아무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은 것보다 낫다'고 하였으니, 이 책은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보다 더더욱 낫지

---

23) 成宗 八年(1477) 七月 己丑(24일), 成宗實錄 卷八十二
檢討官李昌臣啓曰 : "楊綰之議, 竟不行. 然記之於此者, 美其事也. 國家取士之時, 以爲儒者踏襲前術, 率以奇怪之事, 發爲策問. 去年重試策題, 問以氷蠶火鼠, 橘渡淮而枳, 貉逾汶而死之說. 此說雜出於『列子』·『搜神記』之書, 儒者以此, 皆求幽僻之書, 若此不已, 則末流之弊, 不可勝記."

24) 김대현, 「전기소설의 (傳奇小說) 형성과정과 『수신기(搜神記)』의 연관성」, 『한국한문학연구』21권, 한국한문학회, 1998, p.182.

않겠는가? 『시경』에 “우스갯소리를 잘한다“ 라고 하였고, 『예기』에 ”한 번은 당기고 한 번은 풀어준다.“ 라고 하였으니, 이제 이 책이 익재(益齊) 이제현이 『역옹패설』과 더불어 해동(海東)에서 만세토록 길이 전해지지 않겠는가? 성화(成化) 18년(1482) 여름 5월에 눌재노인(訥齊老人) 남원(南原) 사람 양성지(梁誠之)가 서문을 쓰다.[25]

위와 같이 양성지(梁誠之, 1415~1482)는 서거정이 쓴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의 서문을 썼는데 서문을 쓰는 과정에서 굳이 경(經)이나 사(史)에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아무 것도 마음 쓰지 않는 것보다는 소일거리나 놀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 공자의 논리를 인용해 소설을 창작한 이유를 합리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그는 소설을 쓰기 위해 경서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면 이런 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논리를 전개할 정도로 창작에 책임감을 가진 소설 담당층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촌담해이』는 무위자가 지었다. 거사가 한가하게 지내며 시골 노인들과 우스갯소리를 나누었는데 그 말들 가운데 크게 웃을 만한 것들을 채집하여 책에 적은 것이다. 책이 완성되자 객이 방문하여 말하였다. “옛날에 성현들의 저서입언은 모두 세상에 드리워 가르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뜻이었지, 다만 그것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사께서 골계의 말을 가려 뽑아 저술하여서 책을 만들었으니, 허황되게 크기만 하고, 뜻이 얕아 군자에게 믿음을 얻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거사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다. 일의 정치함과 조잡함에 상관없이 지극한 이치가 여기에 있고, 말이 순정하거나 허황되게 큰 데에 상관없이 귀에 거스르지 않으면 이해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창랑의 노래에 대해 공자는 자기 취하기에 달렸음을 감탄하였고, 양화의 말을 맹자가 취하여 인을 논하였다. 일이 비록 비속하더라도 달리 해석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지 않다고만 하겠는가?“ (…중략…)이에 글을 써서 글의 맨 앞에 둔다. 무위자(無爲子)가 서문을 쓰다[26]

---

25) 東國滑稽傳 序 (1482) / 梁誠之
吾夫子, 以博奕爲賢於無所用心, 以此而比之博奕, 寧不萬萬愈乎?『詩』曰 : “善戲謔兮”, 『記』曰 : “一張一弛”, 今傳文, 豈不與益齋『稗說』, 永流傳於海東萬世也哉? 成化紀元之十八年夏五, 訥齋老人南原梁誠之序.

26) 村談解頤 自序 / 姜希孟,
『村談解頤』者, 無爲者自著也. 居士居閑, 與村翁劇談, 採其言可解頤者, 筆之於書. 書旣成, 客有過者曰 : “古昔聖賢著書立言, 皆垂世立敎之大者, 非苟爲也. 居士乃摭滑稽之言, 著之爲書, 無乃厖而意淺, 不見信於君子歟?” 居士曰 : “不然. 事無精粗, 至理斯存, 言無純厖, 耳順

이 자료에서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은 자신이 지은 『촌담해이(村談解頤)』에 스스로 서문을 썼다. 강희맹은 객을 통해 예상되는 비판을 언급하였으며 그에 대해 비록 조잡하고 정치하지 못하더라도, 지극한 이치가 있어 치도에 도움이 될 경우에는 스스로 선별하여 취해 보아도 괜찮다는 공자의 논리을 근거로 들어 반론을 펼쳤다.

즉 강희맹은 소설의 저작을 합리화하기 위해 비판을 예상하고 공자의 말을 근거로 들어 옹호론을 전개할 정도로 책임감을 가진 소설 담당층 개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의 형 문안공(文安公, 成任)은 배우기를 좋아하여 싫증을 내지 않아 일찍이 집현전에 있을 때에 『太平廣記』500권을 초록(抄錄)하여 『상절(祥節)』50권을 만들어 세상에 간행하였다. 또 여러 책과 『광기』·『상절』을 모아 『태평통재(太平通載)』80권을 만들었다. 또한 『경사(經史)』의 글을 뽑아 그 대우(對偶)를 따라 문(文)과 질(質)과 공(空)으로 나누니 문(文)은 행어(行語)요, 질(質)은 착어(着語)요, 공(空)은 조어(助語)이다. 또 동국지도를 반쯤 찬술하였을 때, 조정에서 기구를 설치하여『여지승람(輿地勝覽)』을 찬술하니 모두 문안공이 계획한 것이다.[27]

위의 자료에서 역시 성현(成俔, 1439~1504)의 형 문안공 성임(文安公, 成任)이 『태평통재(太平通載)』를 만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문안공이 『태평통재(太平通載)』 외 다수의 문헌을 간행하였음을 언급하며 소설을 학식의 넓음을 보이는 박학의 자료로 삼는 태도를 통해 소설 창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이 역시 소설을 쓰는 이유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박학의 자료로 삼는 논리를 전개할 정도로 소설 창작에 책임감을 가진 소설 담당층의 개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사대부 계층에서는 다양한 독자층이 나타나며, 소설의 창작에서 역시 활동이 나타났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則解. 是以, 滄浪之歌, 孔子歎其自取, 陽貨之言, 孟子取以論仁. 事雖鄙俚, 燕書而郢說之, 何有於不可?”(…중략…)於是書而冠諸篇端. 無爲子序.

27) 慵齋叢話 / 成俔

伯氏文安公, 好學忘倦, 嘗在集賢殿, 抄錄『太平廣記』五百卷, 約爲『詳節』五十卷, 刊行於世. 又聚諸書及『廣記』・『詳節』爲『太平通載』八十卷. 又抄經史之文, 從其對偶, 以文・質・空別之, 文者行語也, 質者着語也, 空者助語也. 又撰或國地圖, 半未成, 而朝廷設局, 撰『輿地勝覽』, 皆文安規模也.

제3절 方外人계층

방외인은 어떤 문화의 중심권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方外에서 삶을 꾸려간 인물들을 지칭한다.[28]

이와 같은 방외인 계층은 사대부 계층의 하위분류에 포함하여 정리할 수 있으나 제도권의 울타리 밖에서 제도권 내에 편입하지 않은 제야세력이던 방외인 소설관의 특이성과 함께, 15세기 소설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외인 계층에 해당하는 김시습의 소설관을 강조하고자하는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사대부 계층의 하위분류에 놓지 않고 독자적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15세기 소설사에서 중요시되는 소설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창작한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자는 열경(悅卿), 호는 동봉(東峰), 매월당(梅月堂)으로 방외인계층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세조가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사건을 계기로 방랑을 시작한 김시습은 기이한 행적과 뛰어난 시문(詩文)으로 뭇사람들의 존경과 찬탄을 자아냈다. 그와 같은 방외인계층은 제도권 내에 편입하지 않은 제야 세력으로 이들 일군의 무리는 사회의 변두리를 어슬렁거리면서 많은 일화와 통렬한 사회비판을 쏟아냈다.

김시습과 함께 방외인 계층으로 분류되는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은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자는 백공(伯恭), 호는 추강(秋江), 행우(杏雨), 최락당(最樂堂)이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절의를 숭상했던 조선조 사대가의 대표적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었으며 『사우명행록』 같은 저술을 할 만큼 초기 사림파의 중심에 위치한 인물이다. 그러나 당대의 위정자들에게 민감한 정치 현안을 과감히 문제 삼는다든가 김시습을 추종하면서 蠶嶺七賢의 좌장 노릇을 하는 등의 방외인적 취향을 적지 않게 지녔다.[29]

즉, 남효온은 김시습과 같이 출세를 포기하고 隱遁과 周遊로 일생을 보냈던 방외인적 인물로 세조의 왕위 찬탈로 인한 모순이 사회 다방면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가던 시기에 일상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였다.[30] 그는 바른말과 과격한 의론으로 時諱에 저촉되어도 꺼림이 없었으며 세상을 조롱하며 울분을 달랬다. 남효온은 스스로 부조리하다고 여기는 현실정치의 대세에 영합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는 성종조 포의로 있으면서 20대에 쓴 「上成

---

28) 윤주필, 『한국의 방외인문학』, 집문당, 1999, p.9.
29) 윤주필, 위의 책, p.350.
30) 문범두, 「추강 남효온(南孝溫)의 방외정신(方外精神)과 문학」,『民族文化論叢』20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1999, p.1.

宗大王書」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계기로 관직을 버리고 끝없는 유랑과 방랑의 길을 택하였다.

남효온의 문학은 그 같은 부조리한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일그러진 위상과 모순된 내면적 갈등을 반영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따라서 그의 작품세계는 방외인 문학에 가까운데 그 중의 하나로 「수향기(睡鄕記)」를 들 수 있다. 「수향기(睡鄕記)」는 내용이 짧고 설명 위주의 서사방식을 가져 본격적인 몽유소설이라 하기는 힘드나 몽유록계통의 소설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몽유록은 꿈을 통해 체험한 일종의 의식 분열 현상을 소설 모티프로 사용하고 있는 일련의 작품들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몽유록은 유유자적에 그치지 않고 사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방편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때문에 정치적 굴곡으로 심하게 요동쳤던 조선 초기에 몽유록 계통의 소설이 태어나게 되었다. 「수향기(睡鄕記)」는 이 계열에 앞장선 작품이다.[31] 내용은 작자가 꿈속에서 수향에 이르러 역대 몽유(夢遊)의 대가를 만나보고 천군에게 고하였다는 짧은 내용으로 각종 한문학적 전범을 원용하여 상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내면적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았으며 마지막에는 자신만이 아는 정신적 성취를 이룩했음을 우언화하여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 성취는 방외인으로서의 자부심이자 기존 통념에 대한 반발일 뿐 그 이상의 세계관적 대안은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32] 이를 종합해 보면 방외인 계층에 속하는 남효온은 위와 같이 몽유록계통의 소설류로 분류되는 「수향기(睡鄕記)」를 쓴 소설의 창작자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남효온과 마찬가지로 생육신의 한 명인 원호(元昊, 1396~?)는 단종 때 사람이며 자는 자허(子虛)이고 호는 관란(觀瀾), 무항(霧巷)으로 원주출신이다. 여말선초 절의의 유학자인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 1330~ ?)과 계파는 다르나 같은 원주 원씨로 원천석은 고려에 대한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킨 선비이다.[33] 그런 충절의 풍교 속에서 원호는 1423년(세종5년)에 문과에 급제, 문종 때 종3품인 집현전 직제학에 이르렀다. 그러나 단종 때 수양대군이 김종서(金宗瑞)등의 대신을 죽이고 실권을 장악하자 병을 구실로 벼슬을 내놓고 향리 원주로 낙향해 은거하였다. 1457년(세조3년)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자 영월 서쪽에 집을 지어 이름을 관란재(觀瀾齋)라 하였으며 시가를 읊거나 글을 짓기도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영월 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임금을

---

31) 김수중, 『고전소설과 문학정신』, 태학사, 2007, pp.46~47.
32) 윤주필, 앞의 책, p.350.
33) 남상호, 「관란 원호의 사상과 선비 정신」, 『韓國思想史學』15권, 한국사상사학회, 2000, p.142.

사모하였다. 단종이 죽자 삼년상을 마친 뒤 고향인 원주에 돌아와 문 밖을 나가지 않았으며 세조가 호조참의에 제수하여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과연 원호를 방외인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벼슬을 하였지만 스스로 부조리한 제도권 내에 영합하기를 거부하며 낙향하여 제야세력으로 은거한 원호의 삶을 보았을 때 방외인적 삶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원호를 방외인계층으로 분류하도록 하겠다.

원호와 관련된 소설계통의 서사로 주목되는 것은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이다.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의 작자에 대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임제설과 김시습설, 원호설의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 최근 1813년 간행된 初刊本『관란선생유고(觀瀾先生遺稿)』의 발견으로 인해 원호의 작자설이 힘을 얻고 있다.[34]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원호를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의 작자로 보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은 남효온의 「수향기(睡鄕記)」와 같이 몽유록계통의 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몽유구조의 소설사적인 흐름 속에서 욕망의 성취를 기본으로 하는 몽유전기소설에서 벗어나 이념의 관철을 시도하는 몽유록계 소설양식의 전형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용은 단순한 편으로 강개인 원자허가 남효온의 안내로 꿈속에서 단종과 육신 등을 만나 사군담론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설연작시하던 중 우레소리에 놀라 깨니 꿈이었다는 허구적 이야기이다.

즉 이를 볼 때 방외인 계층에 포함되는 원호는 몽유록계 소설류로 분류되며 몽유록계 소설양식의 전형을 확립한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의 창작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시습은 명인(明人) 구우(瞿佑)가 지은『전등신화(剪燈新話)』의 영향을 입고『금오신화(金鰲新話)』를 창작하였다.『전등신화(剪燈新話)』는 明初의 전기소설집으로 明淸 文言小說 鼻祖라 할 수 있다.[35]

독자의 입장에서 그는『전등신화(剪燈新話)』를 읽고 받은 감동을 상세하게 한시로 피력하였다.

---

34) 정용수, 「원생몽유록의 문학성과 조선시대 육신(六臣)의 인식」,『동방한문학』32권, 동방한문학회, 2007, p.131.

35) 최용철, 「명청소설의 동아시아 전파와 교류 -『전등신화』- 를 중심으로」,『중국학논총』13권,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00, p.42.

산양군자가 문장을 희롱하여
등불을 돋아 기이한 말을 기록하니
산문, 시, 기사 등이 있고
유희와 골계가 차례로 늘어서 있네.
아름답기는 봄 꽃 같고 변화는 구름 같아
풍류스런 이야기 모두 담아냈네.
처음엔 믿을 것이 없을 듯했으나 차차 음미해보니
흥미로움이 마치 사탕수수를 씹는 듯하네.[36]

시의 내용은 대체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전반적인 소개와 그 다음으로 괴탄한 내용에 대한 변호, 세 번째는『전등신화(剪燈新話)』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독서의 효과를 적고 있다.[37] 이를 볼 때 김시습은 소설류 계통의 서사인『전등신화(剪燈新話)』의 독자였으며 감상을 시로 적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소설『금오신화(金鰲新話)』의 창작을 들 수 있다.

작은 방 푸른 방석엔 온기가 넉넉하고
창 가득 매화 비치는 달 밝을 무렵
등불 돋아 밤새도록 향 사르고 앉아서
세상에서 못 본 글을 한가로이 쓰노라.

옥당에서 글 쓰는 건 이미 마음 없으니
깊은 밤 소나무 선 창가에 단정히 앉아.
화로에 향 꽂고 검은 책상 정결히 하여
풍류있는 기이한 말 세세히 찾노라.[38]

---

36) 題剪燈新話後 / 金時習
山陽君子弄機杼　手剪燈火錄奇語
有文有騷有記事　遊戲滑稽有倫序
美如春葩變如雲　風流話柄在一擧
初若無憑後有味　佳境恰似甘蔗茹

37)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앞의 책, p.18.

38) 題金鰲新話 二首 / 金時習·
矮屋靑氈暖有餘　滿窓梅影月明初
挑燈永夜焚香坐　閑著人間不見書
玉堂揮翰已無心　端坐松窓夜正深
香揷銅鑪烏几淨　風流奇話細搜尋

위와 같이 김시습은 그의 시 「제금오신화 이수(題金鰲新話 二首)」에서 『금오신화(金鰲新話)』의 창작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방외인 계층에 속하는 김시습은 소설의 독자임과 동시에 창작자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종합해 보면 방외인 계층은 창작의 입장에서 원호의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과 남효온의 「수향기(睡鄕記)」, 김시습의 『금오신화(金鰲新話)』의 창작이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수용의 입장에서 김시습이 명인(明人) 구우(瞿佑)가 지은 『전등신화(剪燈新話)』를 읽고 그 감상을 시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제3장 15세기 고소설 담당계층의 소설관

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소설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經史처럼 載道之文일 수 없고 雜談 · 雜說을 기록한 가치 없는 글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어 이어져 왔다.[39] 따라서 소설사적 암흑기였던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에 와 소설에 대한 관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소설에 대해 기본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나 어느 정도 혐오감을 배제하고 평을 하는 경우며, 또 하나는 소설에 대해 혐오감만을 표시하며 배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여기서 어느 정도 혐오감을 배제하고 평을 했다는 것은 혐오감이 주류를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일부가 평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15세기 소설관 역시 배격론을 주축으로 하면서 종종 소극적인 옹호론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상 자료를 개관해 보면 옹호론보다는 배격론이 적게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료 미발굴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당시 양반 사대부들의 눈에는 소설에 대한 견해를 논하는 그 자체부터 비 유학자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40]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배격과 옹호의 측면을 같이 논하고 있는데 이는 당대의 정치현실에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1절 군왕의 소설관

군왕은 소설의 독자로서 15세기의 고소설 담당층의 일면을 차지하고 있다. 독자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군왕의 소설관은 교훈성의 입장, 자취(自取)의 입장,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입장 등으로 소설에 대한 여러 입장의 소극적 옹호론이 드러남을 볼 수 있다.

1. 교훈성의 입장

39) 송진한, 앞의 논문, p.201.
40) 위의 논문, p.202.

조선전기에 해당되는 15세기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이 계속되었던 시기로 문과 성정의 관계가 봉건질서의 확립이라는 개념과 함께 중시되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당시 소설은 소설 자체의 가치개념보다는 세상의 교화(敎化)를 위해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작자들은 교화적 효용론으로 인해 저술에 지장을 받았고 이를 변명하거나 혹은 극복하기 위해 소설류의 서문에서 그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는 經史子集이라는 조선 전기 문학의 틀 속에서 소설 존립의 준거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소설은 당시 성리학이 국시로 되어 鞏固히 그 위치를 다져 가는 재도론적 문학관과 그에서 나온 道文一致 등에서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文의 敎化 역할을 수행하며, 그 명맥을 이을 수 있었던 것이다.[41]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소설의 교훈적 효용을 중시한 것은 조선 전기 소설론의 한 흐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世敎論적 효용론은 조선 전기 왕조실록을 통해 본 소설에 대한 인식의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 임금께서 호조참판 이선(李宣) · 집현전 부수찬(副修撰) 박팽년(朴彭年) · 저작랑(著作郞) 이개(李塏) 등에게 명하여 말하셨다. "옛사람이 당(唐) 명황(明皇)과 양귀비(楊貴妃)의 일을 그린 것이 꽤 많다. 그러나 재미로 즐기는 거리에 불과하였다. 나는 개원(開元) · 천보(天寶)의 성패(成敗)한 사적을 채집하여 그림을 그려서 보고자 한다. 예전 한나라 때에 승여(乘輿)와 악좌(幄坐)와 병풍(屛風)에 주가 취하여 달기(妲己)에게 기대어 앉아 긴 밤의 즐거움을 누리던 것을 그렸다 하니, 어찌 세상 군주들로 하여금 전철(前轍)을 거울삼아 스스로 경계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명황(明皇)은 영명(英明)한 군주라고 불렸었는데, 만년에 여색에 빠져 패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처음과 끝이 다름이 이와 같은 경우는 여지껏 없었다. 월궁(月宮)에 놀았다든가, 용녀(龍女)나 양통유(楊通幽)를 보았다든가 하는 일 같은 데 이르면, 지극히 허황하고 망령되어 글로 쓸 만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자(朱子)도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다 '황제가 공중에서 귀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적어서 명황(明皇)이 기괴한 것을 좋아하는 사실을 보였다. 무릇 이런 말들은 역시 국가를 소유한 자가 마땅히 깊이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편찬하여라.".[42]

---

41) 간호윤, 앞의 논문, p.21.

42) 世宗 二十三年(1441) 九月 壬戌(29일), 世宗實錄 卷九十三

上命戶曹參判李宣 · 集賢殿副修撰朴彭年 · 著作郞李塏等曰 : "古人圖唐明皇 · 楊妃之事者, 頗多. 然不過以爲戲玩之資耳. 予欲採開元 · 天寶成敗之跡, 圖畫以觀. 昔漢時, 乘輿 · 幄坐 · 屛風, 畫紂醉踞妲己, 作長夜之樂, 豈非令世主鑑前轍, 以自戒耶? 明皇號稱英主, 而晩年

위의 자료에서 볼 때 세종은 월궁(月宮)에서 놀았다는 이야기나 용녀(龍女), 양통유(楊通幽)를 보았다는 이야기 등을 보면 지극히 허황되고 또한 망령되어 글로 쓸 만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소설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예전 한나라 때 명황은 승여, 악좌, 병풍에 주왕이 달기에게 기대앉아 긴 밤의 즐거움을 누리던 것을 그렸는데 이는 군주들로 하여금 여색에 빠져 패망한 주왕의 전철(前轍)을 거울삼아 스스로를 경계하게 하려는 뜻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영명(英明)한 군주라고 불렸던 명황(明皇)조차 만년에 여색에 빠져 패망하기에 이르렀음을 언급하며 '처음과 끝이 다름이 이와 같은 경우는 여지껏 없었다.' 라고 하여 이를 경계로 삼고 『태평광기(太平廣記)』를 편찬하라 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세종은 『태평광기(太平廣記)』를 분명한 계감(誡鑑)의 전거(典據)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세종은 지극히 허황하고 망령되어 글로 쓸 만한 것이 아닌 것이라 평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 편찬을 허락하는 모습을 볼 때 소설의 교훈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의 자료에서는 은감으로서 명황의 고사를 이용하는 소설의 교화적 효용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임금께서 양성지에게 이르기를 "경은 『태평광기(太平廣記)』를 아는가? 『태평광기(太平廣記)』의 이야기를 해보시오" 라 하셨다. 양성지가 상계하였다. "옛날 당나라 재상 소괴와 이교의 두 아들이 모두 어린 나이였을 때 중종이 불러서 앞에 두고 선물을 후하게 내려 주면서, '너희들이 읽은 글에서 어떤 일이 가장 좋던가?'하고 물었습니다. 소괴의 아들 정은 '재목은 먹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임금은 간함을 따르면 성군이 된다.' 고 하였고, 이교의 아들은 '아침에 물 건너는 사람의 정강이를 자르고, 어진 사람의 심장을 가른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중종이 '소괴는 아들이 있으나, 이교는 아이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웃으면서 "경은 일을 통하여 권계(勸戒)하는 자라고 이를 만하다." 고 말했다.[43]

沉於女色 以至於敗, 終始之異, 未有如此者也. 至若遊月宮, 見龍女 · 楊通幽等事, 極爲誕妄, 似不足書也. 然朱子於『綱目』 亦書'帝聞空中神語', 以見明皇好怪之實. 凡此等語, 亦有國家者之所宜深戒也. 爾等其纂之."

43) 世祖 八年(1462) 一月 丙申(1일), 世祖實錄 卷二十七

上謂梁誠之曰 : "卿知『大平廣記』? 其語『廣記』中之言." 誠之啓 : "昔唐宰相蘇瓌 · 李嶠二兒皆童年, 中宗召置於前, 賜與甚厚, 因語曰 : '爾讀書, 何事最好?' 瓌子頲曰 : '惟木從繩則正, 后從諫則聖.' 嶠子曰 : '斲朝涉之脛, 剖賢人之心.' 中宗曰 : '蘇瓌有子, 李嶠無兒.'" 上笑曰 : "卿可謂因事勸戒者也."

위의 자료에서 세조는 『태평광기(太平廣記)』를 읽은 양성지에게 그 수록된 이야기를 통한 문답을 청한다. 양성지는 당나라 재상과 아들들의 고사를 통해 聖君과 暴君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소설을 이용하여 세조를 권계하고 있다. 이는 소설의 교훈적 효용이 엿보이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위의 자료들에서는 교훈을 위해서라면 다소 허황되고 망령된 소설이라도 필요하다는 소설에 대한 소극적인 옹호 의식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自取의 입장

'자취(自取)'는 패설류 서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설 옹호론의 하나이다. 소설은 괴탄하고 불경(不經)한 것이니 읽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에 대해 불경한 책이라 하더라도 선하고 악하고는 독자 스스로에게 달렸으니 나름대로 스스로 가려 취해(自取) 보아도 괜찮다고 하는 반론이다.

> 임금께서 전교하셨다. "그대들이 말한 바와 같이 『유양잡조(酉陽雜俎)』 등의 책이 괴탄하고 불경하다면, 『시경·국풍(國風)』과 『좌전(左傳)』에 실린 것은 모두 순정(純正)하다는 것인가? 근래에 인쇄하여 반포한 『사문유취(事文類聚)』또한 이와 같은 일들이 실려 있지 아니한가? 만약 '임금은 이러한 책들을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단지 경서만 읽어야 마땅하다는 것인가? 이극돈은 이치를 아는 대신인데, 어떻게 그 불가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였겠는가? 지난번에 유지(柳輕)가 경상감사(慶尙監司)로 있을 때 심접소(十漸疎)를 병풍에 서서 바치니, 의논하는 자들은 아첨한다고 여겼는데, 지금 말하는 것 또한 이와 같다. 내가 전일에 그대들에게 이 책들을 대강 주해하도록 명하였는데, 필시 그대들이 주해하는 것을 꺼려 이러한 말을 한 것이리라. 이미 불가함을 알았다면 애초에 어찌 말하지 아니하였는가?"[44]

---

44) 成宗 二十四年(1493) 十二月 戊子(28일), 成宗實錄 卷二百八十五
傳曰 : "如爾等之言, 以『酉陽雜俎』等書爲怪誕不經, 則『國風』·『左傳』所載, 盡皆純正歟? 近來印頒『事文類聚』, 亦不載如此事平? 若曰'人君不宜觀此等書', 則當只讀經書平? 克墩識理大臣, 豈知其不可而爲之哉? 前者柳輕爲慶尙監司時, 書十漸疎干屛, 進之, 議者以爲阿諛, 今所言亦如此也. 予前日命汝等略註此書, 必汝等憚於註解而有是言也. 旣知其不可, 則其初何不云爾?"

이 자료에서 성종은 사림파의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대한 괴탄하고 불경(不經)하니 읽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아래와 같이 답한다.

성종은 『유양잡조(酉陽雜俎)』등의 책이 괴탄하고 불경하다면, 聖學의 대상인 『시경 · 국풍(國風)』과 『좌전(左傳)』을 예로 들어 이에 실린 것은 모두 순정(純正)하다는 것인지를 반문하고 근래에 인쇄, 반포한 『사문유취(事文類聚)』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임금이 이러한 책들을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임금은 단지 경서만 읽어야 마땅하다는 것인지를 반문하여 설사 괴탄하고 불경한 책이라 하더라도 혹은 經書가 아니라 不經書라 할지라도 선악을 판별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 스스로 가려 취하여 읽어도 무방하다는 논리로 반론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종의 태도는 다음 자료에서도 드러남을 볼 수 있다.

> 임금께서 전교하셨다. "사람은 각각의 부류가 있으니, 어진 자가 비록 불경한 책을 본다 하여 어찌 사악해질 수 있으며, 어질지 못한 자가 비록 정대한 책을 본다 하여 어찌 착해질 수 있겠는가? 착하게 되고 사악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을 뿐이니, 선악을 모두 마땅히 보아야 권계(勸戒)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극돈(李克墩)은 감히 나의 뜻과 부합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때마침 간행하였기에 바쳤을 뿐이다. 홍문관에서 만약 '이극돈이 바친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옳거니와, '아첨하여 바쳤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내부(內府)에 간직한 책을 내보낼 것을 청한 일은 더욱 불공(不恭)하다. 만약 그렇다면 내부에 간직한 잡서를 모두 내보내야 하겠는가? 또 임금은 단지 사서오경만 봐야 한단 말인가?"45)

여기서 홍문관은 사림파 계열로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를 통해 훈구파를 비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자료에서도 성종은 괴탄하고 불경하니 읽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함을 볼 수 있다. 성종은 사람은 각각의 부류가 달라 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비록 불경한 책을 본다 한들 사악해질 수 없고, 어질지 못한 자가 비록 정대한 책을 본다 하여 착해질 수 없으리라 보고, 착하게 되고 사

---

45) 成宗 二十四年(1493) 十二月 己丑(29일), 成宗實錄 卷二百八十五

傳曰 : "人各有類, 賢者, 雖見不經之書, 豈可變而爲惡? 不賢者, 雖見正大之書, 何能爲善? 爲善爲惡, 在人耳, 善惡皆當觀之, 以爲勸戒. 李克墩非敢希予旨也, 時適開刊, 故獻之耳. 弘文館若曰 : '克墩不宜進'則可, '獻諛'則不可. 且請出內藏, 尤爲不恭. 若然則內藏雜書盡出之耶? 且人君只觀四書五經而已耶?"

악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 달려 있을 뿐이므로 선악을 모두 마땅히 보아야 권계(勸戒)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성종은 善을 통해서만 교화될 수 있다는 경직된 윤리의식을 벗어나 비록 惡이라 여겨지는 불경한 책이라 하더라도 선하게 되고 악하게 되고를 결정하는 것은 독자에게 달렸으니 선악을 스스로 가려내어 취해 보아 권계로 삼아도 괜찮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종의 '자취(自取)하기 나름'의 태도는 치도에 바탕을 두고 그에 따라 의도한 교훈을 끌어내는 도구로 소설을 이해하고, 비록 잘못되었지만 그 잘못된 것에서도 교훈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으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설 그 자체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정치적 수단의 입장

15세기 조선조의 시대 상황을 볼 때 문학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설에 관한 논의에도 역시 정치 논리가 분명히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자료에서는 태종과 세종의 『신승전(神僧傳)』과 『여래명칭가곡(如來名稱歌曲)』등에 대한 언급을 통해 조선시대 불교소설의 창작배경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신승전(神僧傳)』등을 통해 소설 옹호론을 내세우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 『신승전(神僧傳)』과 『여래명칭가곡(如來名稱歌曲)』을 각 종파의 절에 반포하였고, 각 관아와 모든 경대부(卿大夫)의 집에까지 두루 보급하였다. 『신승전(神僧傳)』이란 것은 한나라 이래로 여러 괴탄한 중들의 요망한 말과 괴상한 행적을 모은 것이요, 『여래명칭가곡』이란 것은 여러 부처와 보살의 이름을 모아 음률(音律)에 맞춘 것이다. 황제께서 남녀 모두 날마다 외우게 하고 여러 나라에 하사하셨다.[46]

위의 자료에서 볼 때 태종은 『신승전(神僧傳)』과 『여래명칭가곡(如來名稱歌

---

46) 太宗 十七年(1417) 十二月 辛丑(20일), 太宗實錄 卷三十四
頒『神僧傳』·『如來名稱歌曲』干各宗寺社, 徧及各司及諸卿大夫家.『神僧傳』者,集自漢以來, 凡怪誕之僧, 妖言詭行.『歌曲』者, 集諸佛菩薩之名, 比於音律. 帝使男女日誦, 仍賜諸國.

曲)』을 각 종파의 절에 반포하였고, 각 관아와 모든 경대부(卿大夫)의 집에까지 두루 보급하였다. 『신승전(神僧傳)』의 내용은 한나라 이래로 여러 괴탄한 중들의 요망한 말과 괴상한 행적을 모은 것이다. 성리학적인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구질서로서의 불교를 타파하고자 숭유억불(崇儒抑佛)정책을 내세웠던 조선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인 태종이 『신승전(神僧傳)』을 남녀 모두에게 날마다 외우게 하고 여러 나라에 하사하였다는 것은 흥미 있는 자료임에 분명하다.

> 임금께서 경연에 나오시니, 예조에서 상계(上啓)하였다.
> "반포한 『제불여래명칭가곡(諸佛如來名稱歌曲)』을 외우는 일은 일찍이 서울과 지방의 절에 공문을 띄웠으나, 지금 혹은 그대로 실시하기도 하고 혹은 그만 두기도 하였습니다. 서울 안의 각 종단(宗團)은 승록사(僧錄司)에서, 지방 각 절은 유후사(留後司) 및 각 도의 감사(監司)가 조사하여 계월(季月)마다 외우고 익힌 일과를 장부에 적고, 세초(歲抄)를 할 때 예조에 전보(傳報)하게 하여 검증하는 증거로 삼으십시오. 『권선서(勸善書)』·『음즐서(陰騭書)』·『신승전(神僧傳)』은 모두 잘 간직하게 하여, 만약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또 승과(僧科)에 응시하려는 무리 중에서, 유생이 『문공가례(文公家禮)』를 강독하는 것처럼 『명칭가곡』을 외울 수 있는 자만을 응시하게 하십시오." 임금께서 그대로 따르셨다. 47)

이 자료 역시 『신승전(神僧傳)』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세종은 '『권선서(勸善書)』·『음즐서(陰騭書)』·『신승전(神僧傳)』은 모두 잘 간직하게 하여, 만약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또 승과(僧科)에 응시하려는 무리 중에서, 유생이 『문공가례(文公家禮)』를 강독하는 것처럼 『명칭가곡』을 외울 수 있는 자만을 응시하게 하십시오.' 라고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두 자료에서는 불교소설의 창작배경을 볼 수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소설로서의 『신승전(神僧傳)』을 긍정하는 자료로 볼 수 있으나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하여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조선 건국 이후 태종 17년 조~세종 1년 조의 시기를 보면 대외적으로는

---

47) 世宗 一年(1419) 十二月 壬午(12일), 世宗實錄 卷六
御經筵, 禮曹啓 : "頒降『諸佛如來名稱歌曲』, 誦習事, 會於京外寺社行移, 然今或作或輟, 請令京中各宗, 則僧錄司, 外方各寺, 則留後司及諸道監司考察, 每李月誦習, 日課置籍, 於歲抄, 傳報禮曹, 以憑檢擧, 其『勸善書』·『陰騭書』·『神僧傳』, 悉令堅藏, 如有汚穢破毁者, 嚴治其罪, 又赴選僧徒, 依儒生講『文公家禮』, 能誦『名稱歌曲』者, 許令赴選." 從之.

고려사회를 이끌어온 구질서로서의 불교를 철저히 타파하고자 숭유억불정책을 펴고 있으나, 당시에도 실제 지배계층의 부녀자층은 여전히 불교를 숭상하고 있었으며 정치적 상황에서 지배층으로 끌어들여야 할 대상인 민간에게는 고려 사상의 잔재인 불교를 숭상하는 것을 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 『신승전(神僧傳)』등 불교사적의 맥락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소설의 암흑기라 불리던 고려시대를 거쳐 15세기에 불교소설이 지배층에 나타나게 된 계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소설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소설 장르 그 자체를 다룬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위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군왕들의 15세기 소설관은 소설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편찬을 허락하는 모습과 불경한 책이라 하더라도 선하고 악하고는 독자에게 달렸으니 보아도 괜찮다는 주장을 펴는 것을 볼 때 소극적인 소설 옹호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정치상황을 참고할 때 소설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함을 알 수 있으며 소설 장르 그 자체를 다룬 것으로만 생각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사대부계층의 소설관

담당층의 확장과 한문소설들이 등장함에 따라 지식인 계층인 사대부들은 소설의 수용과 창작의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수준으로까지 가지 않으며 대개 상층 기득권층이 한가로움에 겨워 자아내는 한담(閑談)으로서, 작자의 위치상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범위에 머무는 모습을 보인다.

15세기의 사대부 계층들은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 『필원잡기(筆苑雜記)』, 『상절태평광기(詳節太平廣記)』, 『목은시정선(牧隱詩精選)』, 『촌담해이(村談解頤)』, 『촌중비어(村中鄙語)』등의 많은 작품들에 대해 서발문을 썼음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소극적인 입장에서의 패설 옹호론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입장에서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필원잡기(筆苑雜記)』와 『유양잡조(酉陽雜俎)』에 관련된 소설에 대한 논의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대부계층 내의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과 그에 따른 그들의 정치적 수단으로서 소

설관의 차이를 볼 수 있다.

1. 창작의 측면

사대부 층에서 창작의 측면의 패설 옹호론은 '기양론(技癢論)'으로 압축된다.

기양(技癢)은 유만주의 『흠영』에서 보이는 고소설 비평어로, 아래와 같이 채수의 『설공찬전』에 대한 김수동의 변론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고소설의 긍정용어이다. 고소설 비평의 논리성을 부여함과 함께 고소설을 저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논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비평용어로 소설을 공격하는 논자들로부터 저자를 방어하기 위해 쓰인 용어이기도 하다.

> 영의정 김수동이 말했다. "들으니 채수의 죄를 교수로써 단죄하자고 하는데, 대간이 정도를 붙들고 사설을 물리치고자 하는 뜻은 진실로 이러해야 마땅합니다. 채수가 만약 스스로 요망한 말을 만들어 인심을 선동했다면 사형으로 단죄함이 옳습니다. 단지 기양으로 말미암아 보고 들은 대로 망녕되이 지은 것이니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것입니다.[48]

여기서 기양은 "인간에게는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가려움과 같이 표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기술 내지 재주가 있는 바, 이 쓰지 않고 견딜 수 없는 표현욕을 기양이라고 한다" 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양은 저술의 심성적 동기로서 단순하게 쓰고 싶은 표현욕을 말하는 것이다.[49] 즉, 기양론이란, 표현 욕구를 참을 수 없어서 표현하였다는 것으로 역시 소극적인 소설 옹호론으로 볼 수 있다.

기양은 이 글뿐 아니라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태평한화골계전서(太平閑話滑稽傳序)」와 홍서봉(洪瑞鳳, 1572~1645)의 「속어면순발(續禦眠楯跋)」등에서도 나타나는데 「태평한화골계전서(太平閑話滑稽傳序)」에서는 서거정과 客, 두 사람의 대화 중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을 지은 것에

---

48) 中宗 六年(1511) 九月 丁卯(20일), 中宗實錄 卷十四
領事金壽童曰 : "聞蔡壽之罪, 斷律以絞, 臺諫扶正道 · 闢邪說之意, 固當如是. 壽若自造爲妖言, 鼓動人心, 則可斷以死, 但爲技癢所使, 聞見而妄作. 是所不當爲, 而爲之也.
49) 간호윤, 앞의 논문, p.173.

대해 客이 꾸짖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 한갓 잡스럽게 맹랑한 이야기를 주워 모아 호사자의 웃음거리로 삼았으니, 이는 놀이패의 으뜸일 따름이다. 어찌 세교에 보탬이 되겠는가?(…중략…)다행히 어진 성군이 위에 계시어 지극한 밝음으로 두루 밝히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일찍이 마음을 바꾸고 본성을 참지 못하여 기괴한 이야기에 몰두한 것은 오로지 기양 때문이다.[50]

여기서 객은 당시 일반 사대부들의 문학관과 같이 세교에 문학론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에 잡스럽고 맹랑한 이야기를 즐기는 기양에 의한 글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작가의 단순한 저술에의 욕망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따라서 기양론은 패관류와 소설의 저술 동기에 자주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51]

> "선생의 정의를 보면 그 지키는 것에 근본이 있음을 알게 되고, 선생의 여사(餘事)를 보면 그 변화의 무구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날랜 말이 마구 달림에 한 자취가 궤범에서 벗어나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것과 같으니, 웅장한 파도가 일렁임에 여파가 웅덩이를 넘는 것을 어찌 묻겠는가? 그 쌓음이 두텁기 때문에 그 발하는 바의 성대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로써 선생을 하찮다고 하겠는가? 하물며 성인(聖人)이 장유자(牆有茨)를 그대로 두고, 원양(原壤)을 (지팡이로) 때리면서도 그 뜻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니, 그 뜻은 은미(隱微)한 것이다. 우리 동방 익재 문충공(益齊 文忠公)이 북으로 중원(中原)을 배워 이름을 세상에 떨쳤고, 『역옹패설』을 지었으니 보는 자들이 익재의 넉넉한 문학에 마음으로 감복하여, (그의 문학이) 물이 넘쳐 이리 저리 흐르는 것에 이의가 없거늘. 선생은 어찌 이 책이 명망에 허물이 될까 근심하리오? 뒤에 이 책을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영인(郢人)의 글을 연인(燕人)이 해석한 것과 같이 한다면 착륜과 창랑(滄浪)의 이치를 역시 여기에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웃음거리에 부치고 말 것은 아니다."[52]

---

50) 太平閑話滑稽傳 序 (1477) / 徐居正
徒屑屑焉, 掇拾孟浪, 爲好事者解頤, 此則俳優之雄長耳. 何補於世敎乎?
(…중략…)會不動心忍性, 馳怪騁奇, 惟技是癢.

51) 간호윤, 앞의 논문, p.173.

52) 滑稽傳 敍(1482) / 姜希孟
“觀先生之正議, 則知其所守之有本矣. 觀先生之緖餘, 則見其變化之無窮矣. 此猶逸驥橫奔, 不恤一跡之出軌範, 雄濤激蕩, 奚問餘波之溢科坎? 由其積之之厚, 故所以發之之盛, 至於如此,

위의 내용 중에서 강희맹은 저자의 여사(餘事)를 보면 그 변화의 무구함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며, 그것은 날랜 말이 마구 달림에 한 자취가 궤범에서 벗어나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것과 같으니 웅장한 파도가 일렁임에 여파가 웅덩이를 넘는 것을 어찌 물을 수 있겠는가 라고 평하고 있다. 이는 창작의 측면에서 저자의 학문과 문장(文章)이 너무도 융성하기에, 넘쳐흘러서 조금 정도(正道)를 벗어나도 전혀 허물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작가를 소극적으로나마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양과 같은 맥락이지만 좀 더 작가를 옹호하려는 경우에 '연일횡류(演溢橫流)'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저자의 학문과 문장(文章)이 너무도 융성하기에 넘쳐흘러서 조금정도 정도(正道)를 벗어나도 전혀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53]

2. 수용의 측면

사대부 계층 내 수용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소설관은 일장일이(一張一弛), 자취(自取), 박학(博學), 용심(用心) 등으로 다양한 소설 옹호론이 드러남을 볼 수 있다.

가. 一張一弛의 입장

'일장일이(一張一弛)'는 『예기(禮記) · 잡기(雜記)』에 나오는, 당기기만 하고 늦추지 않는 건 주나라 성군(聖君)인 문왕(文王)이나 무왕(武王)도 할 수 없고, 한번 당겼으면 한번 늦추는 게 문왕과 무왕의 도(道)라고 하는 기록에서 유래한다. 패설이 경전이나 역사서처럼 가치가 있는 서적은 아님을 알지만 긴장을 이완시키는 이런 책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일종의 변론이다.

'파한(破閑)'이나 '희언(戱言)'등 파적거리라고 하는 것도 '일장일이'와 같은 맥락에 해당한다.[54] 또한 일장일이론(一張一弛論)과 같은 용어로 이장지도론

豈可以此而少先生哉? 而況聖人, 存墻茨而不刪, 扣原壤而不屑, 其志微矣. 吾東方益齋文忠公, 北學中原, 名重一世, 著『櫟翁稗說』, 觀者心服益齋富於文學, 演溢橫流, 而無異議, 先生何慮是篇之有累盛名哉? 使後之觀是篇者, 若如郢人書而燕人解, 則斲輪滄浪之理, 亦可因此而推之, 不但付之嘻笑而已也.

53)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앞의 책, p.16.

(弛張之道論)이 있는데 이장지도론은 서거정의 「골계전서(滑稽傳序)」에 나오는 소설비평 용어이다.

여기서 서거정은 자신과 客,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하여 문왕, 무왕의 이장지도(弛張之道)를 내세워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 제작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장지도는 예기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그 뜻은 아래 인용문과 같다.

> "활을 오랫동안 당기기만 하고 놓지 않는 것은 문왕과 무왕도 능히 하지 않는 바요, 놓기만 하고 펴지 않는 것은 문왕과 무왕도 하지 않은 일이니, 한 번 펴고 한 번 놓는 것이야말로 문왕 무왕의 도인 것이다."[55]

이는 활을 오랫동안 당기기만 하고 놓지 않으면 힘이 다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활을 늦추기만 하고 오랫동안 당기지 않으면 활을 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일장일이 하라는 뜻을 나타낸다. 본래 이 말뜻은 백성들이 일만 하면 긴장이 풀리지 않아 쉽게 피로해 지고, 긴장이 풀려 놀기만 하면 해이해짐을 비유해 한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서거정은 이를 그의 패설류 저술의 정당성을 위해 인용하였다. 이러한 일장일이론은 이승소(李承召, 1422~1484)의 「약태평광기서(略太平廣記序)」에서도 나타난다.

> 진실로 천하의 이치는 무궁하며 사물의 변화 또한 더불어 무궁하므로 한 가지 논의만 고집할 수는 없다네.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육경에 밝지 못하고 색은행괴의 말에 의혹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지. 먼저 육경의 도학에 밝아 정대하고 고명한 지경에 나아갔다면, 비록 가담항어로서 매우 비리한 말이라 하더라도 모두 이치가 담겨 있어서 자신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네. 하물며 쓸쓸하고 우울할 때 이것을 보면 옛사람과 한 자리에서 담소하고 농담하는 것 같아 무료하고 불평한 기분이 얼음 녹듯 말끔히 사라져 가슴을 씻어버리는 데 충분하다네. 이 어찌 일장일이의 도가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패관이라는 직책이 예전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요, 소설가 부류도 후세에 전하지 않았을테지." 후가 "그렇군."하였다. 이에 기록하여 보낸다.[56]

---

54)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위의 책, p.16.
55) 남만성 역, 『禮記』, 211편「雜記」下, 평범사, 1985, p.185.
56) 略太平廣記 序 / 李承召
"況於岑寂伊鬱之際, 得此而觀之, 則如與古人談笑戱謔於一榻之上, 無聊不平之氣, 將渙然氷

이 자료에서 이승소는 쓸쓸하고 우울할 때 이것을 보면 옛사람과 한 자리에서 담소하고 농담하는 것 같아 무료하고 불평한 기분이 얼음 녹듯 말끔히 사라져 가슴을 씻어버리는 데 충분하다고 하며 이를 ‘ 어찌 일장일이의 도가 아니겠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치도에 보탬이 되며 무료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이런 글 역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일장일이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이승소가 말하는 일장일이론의 장점은 무료하고 불평한 기분이 얼음 녹듯 말끔히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가슴 속에 맺힌 생각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그는 또 用心論을 들고 있는데 이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또한 양성지는 「동국골계전서(東國滑稽傳序)」에서 일장일이론을 들고 있다. 이 글에서 보면 經典과 史書는 치국평천하의 道요, 패관소설의 경우는 博聞, 破閑이라고 하여 글의 효용적 가치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 그리고 공자의 용심론과 일장일이론을 들어 이 글의 가치를 적고 있다.[57]

> 경(經)이라 하고 사(史)라 하는 것은 진실로 성스러운 임금과 어진 재상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정하는 도(道)요, 심지어 패관소설(稗官小說)이라는 것도 또한 유자(儒者)가 문장으로 희담(戱談)하거나 혹은 박문(博聞)의 자료로 삼거나 혹은 파한(破閑)을 위함이니 모두가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기(史記)』에 『골계전』이 있고, 송나라 태종이 이방에게 명하여 『태평광기(太平廣記)』를 편찬하여 올리게 한 것도 바로 이러한 뜻이다. (…중략…) 공자께서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이 아무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은 것보다 낫다'고 하였으니, 이 책은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보다 더더욱 낫지 않겠는가? 『시경』에 “우스갯소리를 잘한다“ 라고 하였고, 『예기』에 ”한 번은 당기고 한 번은 풀어준다.“ 라고 하였으니, 이제 이 책이 익재(益齊) 이제현이 『역옹패설』과 더불어 해동(海東)에서 만세토록 길이 전해지지 않겠는가?
>
> 성화(成化) 18년(1482) 여름 5월에 눌재노인(訥齊老人) 남원(南原) 사람 양성지가 서문을 쓰다.[58]

釋, 而足以疎蕩胸懷矣. 斯豈非一張一弛之道乎? 不然則稗官之職, 將不設於古, 而小說之家, 亦不傳於後世矣.” 侯曰 : “然.” 因書而歸之.

57) 간호윤, 앞의 논문, p.187.

58) 東國滑稽傳 序 (1482) / 梁誠之

여기서 볼 때 양성지는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의 서문을 쓰는 과정에서 큰 논리로는 경과 사가 모범이 되나 사변철학이 발달하여 경을 중시하던 송나라 때 지어진 사기에도 골계전이 있으며, 『태평광기(太平廣記)』가 그 시대에 편찬된 것을 볼 때 패관소설(稗官小說)이라는 것도 모두가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서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치도에 보탬이 되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면 이런 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소극적 옹호론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소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딱딱한 것만을 보느니 이런 책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제한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나. 自取의 입장

'자취(自取)'는 위의 군왕의 소설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괴탄하고 불경(不經)하니 읽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불경한 책이라 하더라도 선하고 악하고는 독자에게 달렸으니 보아도 괜찮다는 반론으로 패설류 서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설 옹호론이다.

'자취(自取)'는 '박학(博學)'을 포함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박학(博學)의 자료로 삼는다'는 변론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59]

> "그렇지 않다. 일의 정치함과 조잡함에 상관없이 지극한 이치가 여기에 있고, 말이 순정하거나 허황되게 큰 데에 상관없이 귀에 거스르지 않으면 이해되는 것이니, 이런 이유로 창랑(滄浪)의 노래에 대해 공자(孔子)는 자기 취하기에 달렸음을 감탄하였고, 양화(陽貨)의 말을 맹자(孟子)가 취하여 인(仁)을 논하였으니, 일이 비록 비속하더라도 달리 해석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지 않다고만 하겠는가?"[60]

曰經曰史, 固聖君賢相, 所以治國平天下之道也, 至於稗官小說, 亦儒者, 以文章爲劇, 或資博聞, 或因破閑, 皆不可無者也. 前史有「滑稽傳」, 宋太宗命李昉, 撰進『太平廣記』, 卽此意也. (…중략…) 吾夫子, 以博奕爲賢於無所用心, 以此而比之博奕, 寧不萬萬愈乎?『詩』曰 : "善戲謔兮", 『記』曰 : "一張一弛", 今傳文, 豈不與益齋『稗說』, 永流傳於海東萬世也哉? 成化紀元之十八年夏五, 訥齋老人南原梁誠之序.

59)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앞의 책, p.16.

60) 村談解頤 自序 / 姜希孟

居士曰 : "不然. 事無精粗, 至理斯存, 言無純厖, 耳順則解. 是以, 滄浪之歌, 孔子歎其自取,

이 자료에서 볼 때 강희맹은 객의 비판에 대해 일의 정치함과 조잡함에 상관없이 지극한 이치가 있으며, 말이 순정하거나 허황된 데에 상관없이 귀에 거스르지 않으면 이해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창랑의 노래에 대해 공자는 자기 취하기에 달렸음을 감탄하였고, 양화의 말을 맹자가 취하여 인을 논하였으니 이를 보면 일이 비록 비속하더라도 달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비록 조잡하고 정치하지 못하더라도, 지나치게 난잡하지 않고 지극한 이치가 있어 치도에 도움이 될 경우에는 스스로 선별하여 자취해 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공자의 말을 근거로 들어, 소설에 대한 소극적 옹호를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치도에 바탕을 두고 그에 따라 의도한 교훈을 끌어내는 도구로써 소설을 이해하고, 비록 잘못되었지만 그 잘못된 것에서도 교훈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으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설 자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博學의 입장

소설을 학식의 넓음을 보이는 박학의 자료로 삼는 태도는 17세기 『태촌집(泰村集)』에서 『전등신화(剪燈新話)』의 주석을 교정하거나, 『계곡만필(谿谷漫筆)』에서 『태평광기(殊異傳)』의 『규염객전(虯髯客傳)』을 비판하며, 『부계기문(涪溪紀聞)』에서 『규염객전(虯髯客傳)』을 비판하고, 『부계기문(涪溪紀聞)』에서 「당서연의(唐書演義)」를 비판하는 태도에서 계속 확인된다.[61]

> 생각해 보건대 선생의 시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시체가 구비되어 있으니, 웅혼한 것, 아름다운 것, 충담한 것, 준결한 것, 호방한 것, 엄중한 것, 심오한 것, 전아한 것 등이 있다. 마땅히 전집을 모두 보아야 그 풍부한 기상을 볼 수 있으니 무엇 때문에 가려 뽑겠는가? 그러나 선생의 시가 비록 경사에 근본하여 법도가 삼엄하다 하더라도 또한 장자와 부처, 노자의 글에 종횡으로 출입하고 패관소설에 이르기까지 두루 취하여 버리지 않았으니. 이런 까닭으로 학식과 견문이 얕은 자가 책을 펴면 아득해져서 한탄하게 된다. 이에 목은시정선을 편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62]

陽貨之言, 孟子取以論仁. 事雖鄙俚, 燕書而郢說之, 何有於不可?”

61)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앞의 책, p.16.

위 내용에서 서거정은 저자의 시가 비록 경사에 근본하여 법도가 삼엄하다 하더라도 장자와 부처, 노자의 글에 종횡으로 출입하고 패관소설에 이르기까지 두루 취하여 버리지 않았다고 평하고 있다. 또한 노자, 장자와 부처의 글은 물론이며 패관까지 두루 섭렵했다는 것을 언급하여 저자의 박학다식함을 내세워 소설을 학식이 넓음을 표현하는 자료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그 저술한 바가 모두 우리나라의 일을 널리 찾아 모은 것이니, 위로는 조종(祖宗)의 신사(神思) · 예지(睿智)로 창수(創垂)하신 큰 덕을 기록하였고, 아래로는 공경(公卿)과 어진 대부(大夫)들의 도덕 · 언행 · 문장 등 정치에 모범이 될 만한 일에 미쳤으며, 국가의 전고(典故)와 여항(閭巷)의 풍속 가운데 세교(世敎)에 관계있는 것으로서 국사(國史)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을 갖추어 기록하여 빠짐이 없으니, 비유하건대 진시황의 무덤을 발굴하니 진귀한 보물이 모두 나오는 격이요, 우저(牛渚)에서 무소뿔을 태우니 귀신들이 달아나지 못한 격이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싫증을 잊게 하였다. 대개 필담(筆談)은 벼슬을 그만 두고 거처하던 때[林下]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한 것이요, 언행록은 명신(名臣)의 실제 행적을 기록한 것이니, 이 책은 이 둘을 겸한 것이다. 어찌 『수신기(搜神記)』·『유양잡조(酉陽雜俎)』 등의 책과 같이 기괴한 일을 들추어서 두루 섭렵하였음을 자랑하며, 웃음거리로 이바지하는 데 그치겠는가?[63]

위의 자료에서 역시 표연말은 내용의 저술한 것이 모두 우리나라의 일을 널리 찾아 모은 것이므로 위로는 조종의 신사, 예지로 창수하신 큰 덕을 기록하였고, 아래로는 공경과 어진 대부들의 도덕, 문장 등 정치에 모범이 될

---

62) 牧隱詩精選 序 / 徐居正
竊嘗以謂先生之於詩, 不凝滯於一, 衆體皆備. 有雄渾者, 有麗藻者, 有沖澹者, 有峻潔者, 有豪以贍者, 有嚴以重者, 有奧而深者, 有典而雅者, 當合全集而觀之, 可以想富哉之氣象, 復何事於 精選哉? 然先生之詩, 雖本經史, 法度森嚴, 而亦復縱橫出入於蒙莊・佛・老之書, 以至稗官小說, 傳採不遺. 是以末學謏聞, 開卷茫然, 有望洋之嘆, 此『精選』之不得不編也.

63) 筆苑雜記 序 (1486) / 表沿沫
其所著述, 皆博採吾東之事, 上述朝宗神思 · 睿智, 創垂之大德, 下及公卿賢大夫道德 · 言行 · 文章, 政事之可爲模範者, 以至國家之典故 · 閭巷風俗, 有關於世敎者, 國乘所不載者, 備錄無遺, 譬如塚發驪山, 珍貝盡獻, 犀燃牛渚, 光怪難逃. 讀之令人, 疊疊忘倦. 叢筆談, 談林下之聞見, 言行錄, 錄名臣之實迹, 而是篇殆兼之. 豈若『搜神』·『雜俎』等編, 摘奇抉怪, 誇涉獵之廣博, 供談者之戲劇而止耶?

만한 일에 미쳤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국자의 전고와 여항의 풍속 가운데 세교에 관계있는 것으로서 국사에 실려 있는 않은 것을 갖추어 기록해서 빠짐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국자의 전고, 여항의 풍속 가운데 국사에 실려 있지 않은 것까지 광범위하게 다루었다고 평하여 소설을 학식이 넓음을 내세우는 자료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공(成任)이 지은 시문이 대단히 많았으나, 화재로 거의 잃고 겨우 책 한 질을 만들 수 있었을 뿐이다. 공이 일찍이 고금(古今)의 이문(異聞)을 편찬하여 다듬어서 100권으로 만들고 이름을 '태평통재(大平通載)'라고 했는데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아! 공의 도량과 재주로도 지위가 삼공(三公)에 이르지 못했고, 수명은 100세에 미치지 못했으니, 천명(天命)을 기필(期必)할 수 있을까?[64]

위의 내용에서 성현은 『태평통재(大平通載)』를 편찬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는 공이 지은 시문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언급하며 저자가 고금(古今)의 이문(異聞)을 편찬하여 다듬어 100권으로 만들고 이름을 『태평통재(大平通載)』라고 붙였는데 세상에 전해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즉, 이는 고금의 이문에 대해 대단히 박식하다는 것을 내세워 그를 통해 패설을 박학의 자료로 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의 형 문안공(文安公, 成任)은 배우기를 좋아하여 싫증을 내지 않아 일찍이 집현전에 있을 때에 『太平廣記』500권을 초록(抄錄)하여 『상절(祥節)』50권을 만들어 세상에 간행하였다. 또 여러 책과 『광기』·『상절』을 모아 『태평통재(太平通載)』80권을 만들었다. 또한 『경사(經史)』의 글을 뽑아 그 대우(對偶)를 따라 문(文)과 질(質)과 공(空)으로 나누니 문(文)은 행어(行語)요, 질(質)은 착어(着語)요, 공(空)은 조어(助語)이다. 또 동국지도를 반쯤 찬술하였을 때, 조정에서 기구를 설치하여『여지승람(輿地勝覽)』을 찬술하니 모두 문안공이 계획한 것이다.[65]

---

64) 文安成公碑銘 / 洪貴達
然公所著詩文甚多, 災于鬱攸, 殆盡, 僅得裒聚成一帙. 公嘗編古今異聞, 釐爲百卷, 名曰'大平通載', 行于世. 嗚呼! 以公之度量才華, 而位不到台鉉, 壽不及期頤, 天可必乎?

65) 慵齋叢話 / 成俔
伯氏文安公, 好學忘倦, 嘗在集賢殿, 抄錄『太平廣記』五百卷, 約爲『詳節』五十卷, 刊行於世. 又聚諸書及『廣記』·『詳節』爲『太平通載』八十卷. 又抄經史之文, 從其對偶, 以文·質·空別之, 文者行語也, 質者着語也, 空者助語也. 又撰或國地圖, 半未成, 而朝廷設局, 撰『輿地勝覽

위의 자료는 성현의 형 문안공 성임(文安公, 成任)이 『태평통재(太平通載)』를 만든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문안공이 배움을 좋아하여 『태평통재(太平通載)』 외 다수의 문헌을 간행하였음을 언급하며 소설을 박학의 자료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세상에 저술가가 적어서 촌야한담은 마땅히 실리지 못했고, 삼한 이래로 조정의 의식이나 지지도 막연하여 알기 어렵다. 김부식이 펴낸 『삼국사기』는 시간이 오래지 않아 상세히 드러낼 수 있었을텐데, 고구려의 졸본강 · 비류강, 환도국양 · 송양국 · 황룡국, 그리고 옥저 · 예 · 맥 · 숙식 · 발해의 사방 경계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던 것은 어찌된 일인가? 고려가 번성하고 있을 때에는 문사들이 많아서 마땅히 잡저나 패관소설 등이 있어 방증하여 고증하기에 충분하였으나 몇 차례의 전쟁을 만나서 불타 없어졌는가? 지금은 볼 수 없으니 한탄할 일이로다.[66]

위의 자료에서도 패설을 촌야한담이나 조정의 의식 등을 알아보는 고증(考證)의 자료로 취급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소설을 잡다한 지식까지 상세히 정리할 정도로 학식이 넓음을 나타내는 자료로 삼는다는 면에서 소설을 박학의 자료로 삼는 인식과 동일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김부식이 펴낸 『삼국사기(三國史記)』는 시간이 오래지 않아 고구려의 졸본강 등과 옥저 등 발해의 사방 경계를 상세히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인데 어디인지 알지 못했던 것은 어찌된 일인가를 묻는 내용과, 고려가 번성하고 있을 때에는 마땅히 잡저나 패관소설 등이 있어 고증하기에 충분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전쟁 때문에 불타 없어졌기 때문인가를 언급하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보면 위의 자료는 『삼국사기(三國史記)』등의 역사서와 패관소설을 박학의 자료로 같이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설을 허구의 문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학식이 넓음을 나타내는 자료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즉, 소설을 허구의 문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박학다식(博學多識)의 자료로만 삼고 있기 때문에 사실에

』, 皆文安規模也.

66) 謏聞鎖錄 / 曺伸

世少文獻之家, 村野閑談, 宜無載錄, 自三韓以來, 朝儀地誌, 漠然難知. 金富軾撰『三國史』, 年代不遠, 可以詳著, 而如句麗之卒本川・沸流水・丸都國壤・松讓國・黃龍國・沃沮・穢・貊・肅愼・渤海, 皆不知其四至八到, 何耶? 高麗盛時, 文士彬彬 宜有雜著, 稗官小說, 足以傍見攷證, 而屢遭兵燹灰滅耶? 于今不見, 可勝嘆哉?

어긋날 경우에는 여지없이 비판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用心의 입장

‘용심(用心)’이란 『논어 · 양화(陽貨)』에 나오는,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게 아무 것에도 마음 쓰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라는 무소용심(無所用心)에서 유래 하였다. 이는 문장이나 시는 예로부터 小技로 치부되었지만 그러한 소기일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으로 효용적 가치를 통한 문의 의미를 말한 것이다. 이는 이승소의 「약태평광기서(略太平廣記序)」에서도 나타나며 역시 소극적인 태도이긴 하지만 소설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용심은 패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공자(孔子)는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괴탄한 일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기에,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마음 쓰지 않는 것보다는 놀이를 하는 게 낫다고 한 공자의 말을 빗대어 변호한 것이다.[67]

> 공자께서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이 아무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은 것보다 낫다'고 하였으니, 이 책은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보다 더더욱 낫지 않겠는가? 『시경』에 “우스갯소리를 잘한다“ 라고 하였고, 『예기』에 ”한 번은 당기고 한 번은 풀어준다.“ 라고 하였으니, 이제 이 책이 익재(益齊) 이제현이 『역옹패설』과 더불어 해동(海東)에서 만세토록 길이 전해지지 않겠는가? 성화(成化) 18년(1482) 여름 5월에 눌재노인(訥齊老人) 남원(南原) 사람 양성지가 서문을 쓰다.[68]

위의 자료에서 양성지는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의 서문을 쓰는 과정에서 공자의 말을 빌어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이 아무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은 것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책을 읽는 것은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보다 더더욱 낫지 않겠는가 라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

67)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앞의 책, p.17.

68) 東國滑稽傳 序 (1482) / 梁誠之

吾夫子, 以博奕爲賢於無所用心, 以此而比之博奕, 寧不萬萬愈乎?『詩』曰 : “善戲謔兮”, 『記』曰 : “一張一弛”, 今傳文, 豈不與益齋『稗說』, 永流傳於海東萬世也哉? 成化紀元之十八年夏五, 訥齋老人南原梁誠之序.

굳이 경(經)이나 사(史)에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아무 것도 마음 쓰지 않는 것보다는 소일거리나 놀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 공자의 말을 인용해 용심의 논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 하물며 공자(孔子)도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이 아무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은 것보다 낫다'고 하였으니, 이는 또한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이 없음을 스스로 경계하는 것일 따름이다." 그러자 객이 웃으며 물러갔다. 창룡(蒼龍) 정유년(1477) 7월 7일에 사가노은(四佳老隱) 강중(剛仲) 서거정(徐居正)이 쓰다.[69]

이 자료에서 서거정은 골계를 모은 글을 쓴 것에 대한 입장을 변호하는 뜻으로 글을 지었다. 서거정은 삶의 수많은 근심거리 가운데 그저 미소를 지을 만한 일도 해봄직 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근거로 사마천의 정사, 사기에도 골계가 있는 것을 볼 때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탓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정치적 수단의 입장

군왕의 소설관에서도 언급했듯이 15세기 조선조의 시대 상황을 볼 때 소설에 관한 논의에는 당시의 정치 논리가 분명히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이 계속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당시 소설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소설이 조정에서 심각하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성종(1470~1494) 24년(1493)의 일이다. 태종 조에 잠깐 언급되었던 괴탄불경(怪誕不經)한 서(書)의 문제는 이미 태종 조에서부터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당시에는 별 논란이 없었으나, 『성종실록(成宗實錄)』에서는 우리 소설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으로 나타난다.[70] 그러나 이 사건은 소설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당시의 정치 상황에 더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69) 太平閑話滑稽傳 序 (1477) / 徐居正
“況孔聖以博奕爲賢於無所用心者, 此亦居正無所用心之自戒爾.” 客笑而去. 蒼龍丁酉重七, 四佳老隱徐居正剛中書.
70) 간호윤, 앞의 논문, p.22.

이와 같이 사대부계층의 소설관에는 당시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된 정치적 입장에 따른 대비된 소설관이 드러나는데 이는『유양잡조(酉陽雜俎)』와『필원잡기(筆苑雜記)』등에 대한 논의에서 드러남을 볼 수 있다.

부제학(副題學) 김심(金諶)등이 와서 아뢰었다.

"『당송시화(唐宋詩話)』·『파한집(破閑集)』·『보한집(補閑集)』등의 책을 주해하는 일을 신 등이 꺼려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사문유취(事文類聚)』를 교정하는 일을 먼저 전교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주해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신하가 명을 받으면 비록 위험한 곳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감히 치하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이런 사소한 일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꺼려하겠습니까? 신 등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 등은 보잘것없는 재능을 가지고 시종(侍從)으로 대죄(待罪)하면서 시학을 임금의 말류(末流)의 일로 생각하여 평소 성상께서 혹시라도 유의(留意)하심이 있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극돈(李克墩)은 사리를 아는 대신으로서 이 불경하고 우스운 책을 바쳤으므로, 신등은 마음에 진실로 그르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뢰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감히 허물이 없는 데에서 허물을 찾고 말이 없는 데에서 말을 만들고자 하였겠습니까? 주해하라는 명을 받들고 즉시 논계(論啓)하지 아니한 것은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그러나 신하의 의리는 생각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계달(啓達)하는 것이니, 어찌 말할 때가 이르고 늦은 것으로써 감히 혐의[形迹]를 피하겠습니까? 지금 하교(下交)를 받들고 보니 송구스런 마음[隕越]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죄(待罪)하기를 청합니다."[71]

위의 자료에서 볼 때 김심(金諶, 1445~1502)은 성종의『당송시화(唐宋詩話)』,『파한집(破閑集)』,『보한집(補閑集)』등의 책을 주해하라는 명에 대해 '이극돈(李克墩)은 사리를 아는 대신으로서 이 불경하고 우스운 책을 바쳤으므로, 신등은 마음에 진실로 그르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뢰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감히 허물이 없는 데에서 허물을 찾고 말이 없는 데에서 말을 만들고자

71) 成宗 二十四年(1493) 十二月 己丑(24일), 成宗實錄 卷二百八十五.
副提學金諶等來啓曰 : "『唐宋詩話』·『破閑』·『補閑』等集, 注解事, 以臣等爲厭憚, 前此『事文類聚』爲先校正事承傳, 故未卽註解. 人臣受命, 雖蹈湯赴火, 且不敢避, 況此文墨細事, 豈有一毫厭憚之情? 臣等萬無是心. 臣等俱以劣能待罪侍從, 以爲詩學人主之末事, 常恐聖上或有留意, 克墩以識理大臣, 獻此不經戲劇之書, 臣等心實非之, 故啓之耳, 安敢求疵於不疵, 造辭於無辭平? 承註解之命, 不卽論啓, 誠如上敎, 人臣之義, 有懷必達, 豈以言之早晚, 敢避形迹平? 今承下敎, 不勝隕越. 請待罪."

하였겠습니까? 주해하라는 명을 받들고 즉시 논계(論啓)하지 아니한 것은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라고 아뢰고 있다.

김심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며 자는 군량(君諒), 시호는 문정(文貞)으로 김종직(金宗直)휘하의 문인이다. 여기서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은 영남 사림파의 거두로 그의 휘하인 김심은 도를 근본으로 하고 문장은 도를 실어 나르는 도구로 여기는 전형적인 사림파의 도학파(道學派)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가 비판하고 있는 이극돈(李克墩, 1435~1503)은 조선중기문신이며 자는 사고(士高)로 그는 성종 이후 정계에 진출한 사림파와 반목이 심한 훈구파의 거목이었다. 훈구파는 문장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사장파(詞章派)의 입장을 취하였다. 즉, 위의 내용에서는 『당송시화(唐宋詩話)』, 『파한집(破閑集)』, 『보한집(補閑集)』등의 책을 둘러싸고, 괴탄하고 불경(不經)하니 읽어서는 안 된다는 사림파의 소설 부정론을 바탕으로 사림파와 훈구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홍문관 부제학 김심(金諶)등이 차자(箚子)를 올렸다. "삼가 듣자오니, 지난번 이극돈(李克墩)이 경상감사가 되고, 이종준(李宗準)이 도사(都事)가 되었을 때 『유양잡조(酉陽雜俎)』·『당송시화(唐宋詩話)』·『유산악부(遺山樂府)』 및 『파한집(破閑集)』·『보한집(補閑集)』·『태평통재(太平通載)』등의 책을 간행하여 바치니, 내부(內府)에 간직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송시화』·『파한집』·『보한집』등의 책을 내려, 신 등으로 하여금 역대의 연호와 인물의 출처를 대략 주해하여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들은 제왕의 학문은 마땅히 경사(經史)에 마음을 두어 수신제가(修身齊家)하고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하는 요체와 치란(治亂)과 득실(得失)의 자취를 강구할 뿐이고, 이외에는 모두 도(道)를 다스리는데 무익하고 성학(聖學)에 방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극돈 등이, 어찌 『유양잡조(酉陽雜俎)』와『당송시화』등의 책이 괴탄하고 불경한 말과 부화(浮華)하고 실없는 말로 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반드시 진상한 것은, 전하께서 시학(詩學)에 뜻을 두심을 알고 그에 부합한 것입니다. 임금이 숭상하는 것은 따르는 자들이 많은 법이라 이극돈도 그러한 터인데, 하물며 매개(媒介)를 통해 진상한 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처럼 괴탄하고 실없는 이야기책은 전하께서 음란한 음악과 미색(美色)처럼 멀리해야 하지 내부에 비밀히 저장하여 을야지람(乙夜之覽)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위의 여러 책을 외장(外藏)에 내보내게 하여, 성상께서 심성을 기르는 공(功)을 보태고 신하들의 아첨하는 길을 막으소서."[72]

위의 자료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김심 등은 『유양잡조(酉陽雜俎)』를 둘러싸고, 괴탄하고 불경(不經)하니 읽어서는 안 된다는 확연한 부정론을 펼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을 김심과 성종이 소설자체를 인정하여 김심이 소설의 폐해를 주장하고, 성종이 소설 옹호론을 편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김심 등은 『유양잡조(酉陽雜俎)』등이 치도(治道)에 무익하고 성학(聖學)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즉 임금에게만 방해가 된다는 뜻이며 또 그토록 무익하고 폐해가 큰 책이라면 응당 모든 책을 수거해 폐기함이 옳을 것인데 왜 책을 외장(外藏)에 내보내게 하여 시속을 흐리게 하려 했을까? 그리고 이러한 책을 간행하여 바치는 것이 신하들의 아첨하는 길이라는 것인가?[73] 아래 성종의 답변을 보면 김심 등의 상소가 단지 소설 배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임금께서 전교하셨다. "그대들이 말한 바와 같이 『유양잡조(酉陽雜俎)』 등의 책이 괴탄하고 불경하다면, 『시경·국풍(國風)』과 『좌전(左傳)』에 실린 것은 모두 순정(純正)하다는 것인가? 근래에 인쇄하여 반포한 『사문유취(事文類聚)』또한 이와 같은 일들이 실려 있지 아니한가? 만약 '임금은 이러한 책들을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단지 경서만 읽어야 마땅하다는 것인가? 이극돈은 이치를 아는 대신인데, 어떻게 그 불가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였겠는가? 지난번에 유지(柳輊)가 경상감사(慶尙監司)로 있을 때 심접소(十漸疎)를 병풍에 서서 바치니, 의논하는 자들은 아첨한다고 여겼는데, 지금 말하는 것 또한 이와 같다. 내가 전일에 그대들에게 이 책들을 대강 주해하도록 명하였는데, 필시 그대들이 주해하는 것을 꺼려 이러한 말을 한 것이리라. 이미 불가함을 알았다면 애초에 어찌 말하지 아니하였는가?"[74]

---

72) 成宗 二十四年(1493) 十二月 戊子(28일), 成宗實錄 卷二百八十五
弘文館副提學金諶等上箚子曰 : "伏聞, 頃者李克墩爲慶尙監司, 李宗準爲都事時, 將所刊『酉陽雜俎』·『唐宋詩話』·『遺山樂府』及『破閑』·『補閑集』·『太平通載』等書以獻. 旣命藏之內府, 旋不『唐宋詩話』·『破閑』·『補閑』等集, 令臣等略註歷代年號人物出處以進. 臣等竊惟帝王之學當潛心經史, 以講究修齊治平之要 · 治亂得失之跡耳, 外此, 皆無益於治道, 而有妨於聖學, 克墩等豈不知『雜俎』·『詩話』等書, 爲怪誕不經之說 · 浮華戲劇之詞? 而必進於上者, 知殿下留意詩學而中之也. 人主所尙, 趍之者衆, 克墩尙爾, 況媒進者平? 若此怪誕戲劇之書, 殿不當如淫聲美色而遠之, 不宜爲內府秘藏, 以資乙夜之覽. 請將前項諸書出付外藏, 以益聖上養心之功, 以杜人臣獻諛之路."
73) 간호윤, 앞의 논문, p.23.
74) 成宗 二十四年(1493) 十二月 戊子(28일), 成宗實錄 卷二百八十五
傳曰 : "如爾等之言, 以『酉陽雜俎』等書爲怪誕不經, 則『國風』·『左傳』所載, 盡皆純正歟? 近來印頒『事文類聚』, 亦不載如此事平? 若曰'人君不宜觀此等書', 則當只讀經書平? 克墩識理大

위의 자료에서 성종은 『유양잡조(酉陽雜俎)』가 괴탄불경의 서라 한다면 『사문유취(事文類聚)』와 『태평광기(太平廣記)』 역시 괴탄불경의 서인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들어 김심 등의 저의를 의심한다. 『유양잡조(酉陽雜俎)』와 『태평광기(太平廣記)』는 내용상 별 차이가 없는데 김심 등이 이극돈을 공격한 것은 당시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된 정치적 상황을 소설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정치적 반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김종직의 문인으로 후일 무오사화 때 사형 당한 사림의 이종준이 이극돈과 함께 탄핵의 대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75]

> 승정원에 전교(傳敎)하시기를, "어제 홍문관에서 아뢴 바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셨더니, 도승지 김응기(金應己)등이 상계하였다.
> "이보다 앞서 김영유(金永濡)(金永濡, 1418~1494)가 경상도감사가 되어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를 진상하였는데 이 책은 규간(規諫)하는 정대(正大)한 책이니 바쳐도 옳거니와, 잡서(雜書)와 같은 것은 단지 간행만 할 뿐이고 바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홍문관에서 아뢴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76]

여기서 역시 홍문관은 사림파로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를 통해 '규간(規諫)하는 정대(正大)한 책은 바쳐도 옳지만 잡서(雜書) 같은 것은 단지 간행만 할 뿐이고 바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라고 하여 훈구파를 비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15세기에는 『유양잡조(酉陽雜俎)』등을 둘러싸고, 괴탄하고 불경(不經)하니 읽어서는 안 된다는 사림파의 주장을 바탕으로 훈구파와 사림파의 논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당대의 훈구파, 사림파의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정치적 입장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설을 이용했을 뿐 소설 그 자체를 문학 장르로 삼

臣, 豈知其不可而爲之哉? 前者柳輕爲慶尙監司時, 書十漸疎干屛, 進之, 議者以爲阿諛, 今所言亦如此也. 予前日命汝等略註此書, 必汝等憚於註解而有是言也. 旣知其不可, 則其初何不云爾?"

75) 간호윤, 앞의 논문, p.24.

76) 成宗 二十四年(1493) 十二月 己丑(29일), 成宗實錄 卷二百八十五
傳于承政院曰 : "昨日弘文館所啓, 是耶非耶?" 都承旨金應箕等啓 曰 : "先是金永濡爲慶尙道監司, 進『陸宣公奏議』, 此書則規諫正大之書, 進之可也. 如雜書, 但當開刊而已, 不宜進也. 弘文館所啓, 以此也."

아 비판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중국의 소설을 향유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에서 특별히 통제를 가하지 않는 것 등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77]

또한 서거정의 『필원잡기(筆苑雜記)』에 대한 조위(曹偉, 1454~1503)와 이세좌(李世佐, 1445~1504)의 발문에서 역시 사림파와 훈구파의 시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기자가 왕으로 봉해진 이래로, '문헌이 중화와 비슷하다'고 일컬어졌다. 전조 500년간 문학하는 선비가 빈빈하게 배출되어, 유고로써 세상에 전하는 자가 무려 수십여 명이나 되니, 인재가 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세의 조정과 민간의 일이나 명신 · 현사의 언행을 기술하여 세상에 전한 사람은 드물었다. 다만 이학사(李仁老)의 『파한집』과 최태위(崔滋)의 『보한집』이 지금도 시인들의 담론하는 자료가 되고 사대부들의 즐기는 바가 된다. 그러나 논한 바가 모두 글귀를 다듬는 것에 대한 것이요,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는 대개 그 취할 것이 없다. 그 후에 익대 문충공(李齊賢)이 『역옹패설』을 지어서 비록 간혹 골계의 말이 있기는 하나, 조종세계와 조정전고를 기록하고 변증한 바가 많았으니, 실로 당대의 유사이다. 이제 좌주 달성상공(徐居正)께서 편찬한 『필원잡기(筆苑雜記)』를 보니, 그 규모가 대략 『역옹패설』과 같다.[78]

위의 자료를 보면 『유양잡조(酉陽雜俎)』에 관한 부정적 입장에 반하여 『파한집』과 『보한집』에 대해 '국가의 정치에 관한 것이 없고 '논한 바가 모두 글귀를 다듬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 글귀 다듬는 점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역옹패설』에 대해서는 '간혹 골계의 말이 있기는 하나, 조종세계와 조정전고를 기록하고 변증한 바가 많았으니, 실로 당대의 유사'라고 하여 국가 정치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경세치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이와 마찬가지인 『필원잡기(筆苑雜記)』에 대해서도 경세치도의 입장에서 긍정적

---

77) 간호윤, 앞의 논문, p.26.

78) 筆苑雜記 序 (1487) / 曹偉

東方, 自箕子受封以來, 世稱文獻侔擬中華. 而前朝五百年間, 文學之士彬彬輩出, 以遺稿傳于世者, 無慮數十餘家, 可謂人才之盛也. 然記述當世朝野之事 · 名臣賢士之所言若行, 以傳於後者, 罕有其人, 獨李學士『破閑集』· 崔太尉『補閑集』, 至今資詩人之談論, 爲縉紳之所玩. 然所論者, 皆雕篆章句, 其於國家經世之典, 槪乎其無所取也. 厥後, 益齋李文忠公著『櫟翁稗說』, 雖間有滑稽之言, 而祖宗世系 · 朝廷典故, 多所記載而辨證焉, 實當世之遺史也. 今觀座主達城相公所撰『筆苑雜記』, 其規模大略與『櫟翁稗說』, 若合符契.

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서발문을 작성한 조위는 자는 태허(太虛), 호는 매계(梅溪)로 사림파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림파의 입장에서 도학적 견해를 가지고 『필원잡기(筆苑雜記)』를 평가하지만, 『유양잡조(酉陽雜俎)』를 비판한 김심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사림파 사이에서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림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아! 이 책은 모두 우리나라의 전고와 어진 신하의 사적을 겸하여 갖추었고, 넓으며 분변을 잘했으니 실로 나라의 역사에 도움이 될 것이요, 익살스러운 소설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하물며 공의 덕업과 문장은 진실로 일세의 으뜸으로 백대에 솟아났으니 어찌 이 책의 전함을 기다린 후에야(그것이) 더욱 나타나겠는가? 그러나 뒤의 사람들이 이 책을 보게 되면 또한 공의 학문의 넓음을 알 것이고, 조종의 제작(禮樂)의 융성함과 어진 선비와 대부의 좋은 말과 아름다운 행실 또한 장차 후세에 법이 될 것이니 어찌 그 보탬이 적다고 하겠는가?
> 성화 23년 9월 모일에 문인 관찰사 한원 사람 이세좌가 삼가 발문을 쓰다.[79]

이 내용을 보면 위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필원잡기(筆苑雜記)』에 대한 서발문임을 알 수 있다.

이세좌는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자는 맹언(孟彦)이며 광성군(廣城君) 극감(克堪)의 아들이고 훈구파계열의 사람이다. 이세좌는 『필원잡기(筆苑雜記)』를 문장과 박식, 좋은 말을 내세워 후세에 문장지법이 될 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문장을 중시하는 사림파계열의 견해를 바탕으로 『필원잡기(筆苑雜記)』를 평가하는 것으로 『필원잡기(筆苑雜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옹호론을 펼치고 있지만 조위와 이세좌의 견해는 국가 정치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경세치도에 도움이 된다는 세교(世敎)에 대한 입장과, 후세에 문장지법이 될 만하다는 문장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상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언뜻 보기에 소설 그 자체에 대한 옹호와 비판으로 보이지만 당

---

79)筆苑雜記 跋 (1487) / 李世佐

吁! 是書皆吾東方國家之典攷 · 賢臣之事蹟, 該而備, 博而卞, 實羽翼於國乘者, 非滑稽小說之比也. 況公之德業文章, 固將冠一世而聳百代, 奚待此書之傳而後益顯耶? 然後之人觀是編, 亦足以知公學問之博, 而祖宗制作之盛, 賢士大夫嘉言懿行, 亦將爲法於後世, 夫豈小補哉? 成化紀元二十三年九月日, 門人觀察使漢原李世佐謹跋.

대의 정치적 갈등 상황에 비추어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15세기 사대부계층의 소설관은 창작의 측면에서 패설 옹호론인 '기양론(技癢論)과 수용의 측면에서 일장일이(一張一弛), 자취(自取)하기 나름, 박학(博學)의 자료, 용심(用心)이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치도(治道)를 위해서라면 골계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의 소극적인 소설 옹호론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사대부계층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과 그에 따른 소설관의 전개를 『유양잡조(酉陽雜俎)』에 관한 논의와 『필원잡기(筆苑雜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대한 논의에서는 사림파의 일원인 김심의 주장을 통해 도학적 견해에 의한 소설 부정론을 볼 수 있지만, 『필원잡기(筆苑雜記)』에 대한 논의에서의 조위는 김심과 같은 사림파의 도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훈구파인 이세좌가 문장지법에 의해 소설을 긍정하는 것과 같이 경세치도를 통해 소설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즉, 종합해 보면 사대부계층에서는 창작과 수용의 측면에서 소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심풀이 정도로 인식하거나 '너무 딱딱한 것만을 보느니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한적인 시각, 혹은 박학을 증명하는 도구로 소설을 이해하고 있어 소설에 대한 소극적 옹호론이 지배적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훈구파와 사림파의 소설관은 소설을 장르 그 차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보다 당대의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정파와 관계되어 문학을 전개하는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제3절 方外人의 소설관

방외인 계층은 창작의 입장에서 남효온의 「수향기(睡鄕記)」와 원호의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 김시습의 『금오신화(金鰲新話)』의 창작이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수용의 입장에서는 김시습이 『전등신화(剪燈新話)』를 읽고 그 감상을 시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효온과 원호는 소설류의 서사를 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할 소설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상 방외인계층의 소설관

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방외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김시습의 소설관이라고 볼 수 있다. 김시습은 소설관의 측면에서 급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세교적 효용론의 입장과 심리적 정화의 입장에서 소설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 교훈성의 입장

김시습은 서사문학 작품의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소설관의 측면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김시습은 처음으로 효용론적 관점에서 소설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전등신화(剪燈新話)』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은 듯 「제전등신화후(題剪燈新話後)」에서 독후감을 상세하게 한시로 피력하였다. 그 내용은 먼저 『전등신화(剪燈新話)』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로, 여러 문체가 구비되어 있고 처음엔 신빙할 수 없었으나 차차 흥미로워졌다고 하였다. 다음은 괴탄한 내용에 대한 변호로 김시습은 '夫子不刪良有以' 라 하여 공자가 周易의 '龍戰', '鬼車', 書經의 '雊雉'와 같이 경서(經書)에도 괴탄한 내용이 있는데 없애지 않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까닭이 있다고 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버리지 않은 까닭을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해되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허탄해도 기뻐할만하네'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80] 세 번째는 『전등신화(剪燈新話)』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선별된 작품은 「취취전(翠翠傳)」, 「애경전(愛卿傳)」, 「등목취유취경원기(謄穆醉遊聚景園記)」, 「추향정기(秋香亭記)」등 애정을 다룬 것에 국한되어 있다. 애정 전기류에 주목하는 태도는 우리 문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독서의 효과에 대해, 책을 덮고 나니 꿈에서 막 깬듯하고, 평생 쌓였던 불평덩어리가 씻겨 나갔다고 하였다.[81] 그는 시 내용 중에 당시 소설에서 문제가 된 괴(怪)와 탄(誕)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산양군자가 문장을 희롱하여
> 등불을 돋아 기이한 말을 기록하니
> 산문, 시, 기사 등이 있고
> 유희와 골계가 차례로 늘어서 있네.
> 아름답기는 봄 꽃 같고 변화는 구름 같아

---

80) 최현섭, 「金時習의 小說觀 考察」, 『論文集』18권, 仁川敎育大學校, 1984, p.46.
81)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앞의 책, p.18.

풍류스런 이야기 모두 담아냈네.
처음엔 믿을 것이 없을 듯했으나 차차 음미해보니
흥미로움이 마치 사탕수수를 씹는 듯하네.
용의싸움, 귀신 실은 마차, 우는 꿩 등의 기록을
공자께서 없애지 않은 건 진실로 까닭이 있으니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해되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허탄해도 기뻐할만하네.
(…중략…)
홀로 산 속에 누워 봄 꿈을 깨는데
꽃잎 두어 개 책상머리에 떨어지누나.
한 편만 읽어도 족히 웃을 만하니
내 평생 쌓인 불평 덩어리를 씻어내누나.[82]

김시습은 「제전등신화후(題剪燈新話後)」에서 『전등신화(剪燈新話)』을 보면서 아름다움, 변화로움, 달콤함, 재미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쌓인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시 가운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해되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허탄해도 기뻐할만하네' 라고 한 대목이다. 이를 보면 김시습은 소설에 괴이한 말이 등장해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어 교화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며, 허탄한 일을 이야기 한다 해도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孔子가 周易, 書經, 詩經에서 일견 무가치해 보이는 것을 빼버리지 않는 까닭에 대하여 옛 사례들도 자세하게 들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으로 자신의 주장을 보강하였다. 이는 김시습의 소설관을 알아볼 수 있는 핵심 부분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世敎'와 '感人'이다.[83] 세교는

82) 題剪燈新話後 / 金時習
山陽君子弄機杼　手剪燈火錄奇語
有文有騷有記事　遊戱滑稽有倫序
美如春葩變如雲　風流話柄在一擧
初若無憑後有味　佳境恰似甘蔗茹
龍戰鬼車與雌雉　夫子不刪良有以
語關世敎怪不妨　事涉感人誕可喜
(…중략…)
獨臥山堂春夢醒　飛花數片點床額
眼閱一篇足啓齒　蕩我平生磊塊臆

83) 최현섭, 「金時習의 小說觀 考察」, 『論文集』18권, 仁川敎育大學校, 1984, p.47.

세상을 교화함을 뜻하고 감인은 사람을 감동시킴을 뜻한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기이한 이야기를 무조건 비방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지만 김시습은 아무리 기이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세상을 교화시키기만 한다면 훌륭한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허황된 이야기라 하더라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전등신화(剪燈新話)』의 내용이 비록 괴하고 탄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세교나 감인에 관계된다면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김시습의 이러한 생각은『전등신화(剪燈新話)』가 담고 있는 괴와 탄의 문제를 사회교화의 효용적 가치로 극복하려 한 소설의식이라 할 만한 것이다. 즉 김시습은 소설의 가치를 사회교화라는 효용론적 관점에서 긍정하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시습은 당대의 뛰어난 학자였고 지조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런 주장은 유학자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영향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실제로 김시습이『전등신화(剪燈新話)』를 애호했던 것만큼 조선의 유자들은『전등신화(剪燈新話)』를 애호했으며 이양오 같은 소설옹호론자는 김시습의 위의 주장을 수용하여 자신의 소설의식을 펼치는 데 적극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김시습의 '세교'와 '감인'의 주장은 사회교화의 측면에서 소설 효용론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84]

김시습은「제금오신화 이수(題金鰲新話 二首)」에서 '옥당에서 글 쓰는 건 이미 마음 없으니 깊은 밤 소나무 선 창가에 단정히 앉아. 화로에 향 꽂고 검은 책상 정결히 하여 풍류 있는 기이한 말 세세히 찾노라.' 라고 말하였다. 이 '풍류 있는 기이한 말(風流奇話)'에서는 자신의 작품인『금오신화(金鰲新話)』에 대한 설명의 한편으로, 일상이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비록 소설에 괴이한 말이나 허탄한 일이 등장해도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키거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좋다는 김시습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이는『전등신화(剪燈新話)』를 읽고 불평 덩어리가 씻겨나갔다고 했던 원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방 푸른 방석엔 온기가 넉넉하고
창 가득 매화 비치는 달 밝을 무렵
등불 돋아 밤새도록 향 사르고 앉아서
세상에서 못 본 글을 한가로이 쓰노라.

84) 이문규,『고전소설 비평사론』, 새문사, 2002, p.65.

옥당에서 글 쓰는 건 이미 마음 없으니
깊은 밤 소나무 선 창가에 단정히 앉아.
화로에 향 꽂고 검은 책상 정결히 하여
풍류있는 기이한 말(風流奇話) 세세히 찾노라.[85]

이를 종합해볼 때 김시습은 소설에 허탄하고 괴이한 말이 등장해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키며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으로 소설의 가치를 사회교화라는 효용론적 관점에서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심리적 정화의 입장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김시습은 「제전등신화후(題剪燈新話後)」에서 『전등신화(剪燈新話)』을 읽으면서 아름다움, 변화로움, 달콤함, 재미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쌓인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김시습이 이처럼 즐거움과 불만 해소의 기쁨을 누렸다는 것은 곧 소설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남다른 가치 인식이 있었음을 나타낸다.[86]

김시습은 한이 많은 사람이었다. 방외인으로 사회의 변두리에서 많은 일화와 통렬한 사회비판을 쏟아냈던 그는 신동으로 태어나 그 뜻을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 방랑 속에서 한 많은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전등신화(剪燈新話)』를 읽고 '한 편만 읽어도 족히 웃을 만하니, 내 평생 쌓인 불평 덩어리를 씻어내누나'라고 하며 현실적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과 심리적 정화의 기쁨을 말한다는 것은, 심심함과 근심을 없애주고 즐거움과 여유를 갖게 해 준다는 소설이 지닌 심리적 정화의 기능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양군자가 문장을 희롱하여

---

85) 題金鰲新話 二首 / 金時習
矮屋靑氈暖有餘　滿窓梅影月明初
挑燈永夜焚香坐　閑著人間不見書
玉堂揮翰已無心　端坐松窓夜正深
香揷銅爐烏几淨　風流奇話細搜尋
86) 이문규, 위의 책, p.64.

등불을 돋아 기이한 말을 기록하니
산문, 시, 기사 등이 있고
유희와 골계가 차례로 늘어서 있네.
아름답기는 봄 꽃 같고 변화는 구름 같아
풍류스런 이야기 모두 담아냈네.
처음엔 믿을 것이 없을 듯했으나 차차 음미해보니
흥미로움이 마치 사탕수수를 씹는 듯하네.
용의싸움, 귀신 실은 마차, 우는 꿩 등의 기록을
공자께서 없애지 않은 건 진실로 까닭이 있으니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해되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허탄해도 기뻐할만하네.
(…중략…)
홀로 산 속에 누워 봄 꿈을 깨는데
꽃잎 두어 개 책상머리에 떨어지누나.
한 편만 읽어도 족히 웃을 만하니
내 평생 쌓인 불평 덩어리를 씻어내누나.[87]

위의 「제전등신화후(題剪燈新話後)」에서 김시습은 『전등신화(剪燈新話)』와 같은 작품을 怪誕한 것, 幻泡奇踪의 이야기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시습이 『전등신화(剪燈新話)』를 사실의 기록이 아닌 허구적 작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김시습은 이런 허구적인 소설이 해되지 않고 오히려 재미와 기쁨을 주며 평생 가슴에 쌓인 불평 덩어리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처럼 허구적 작품이라도 기쁨을 주며 응어리진 가슴의 불평 덩어리를 없애줄 수 있다는 주장은 소설이 주는 흥미, 재미의 가치와 아울러 정서 순화의 효용성을 뚜렷이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시습이 『전등신화(剪燈新話)』의 한 편만 읽어도 족히 웃을 만하다든가,

---

87) 題剪燈新話後 / 金時習
山陽君子弄機杼　手剪燈火錄奇語
有文有騷有記事　遊戱滑稽有倫序
美如春葩變如雲　風流話柄在一擧
初若無憑後有味　佳境恰似甘蔗茹
龍戰鬼車與雌雉　夫子不刪良有以
語關世敎怪不妨　事涉感人誕可喜
(…중략…)
獨臥山堂春夢醒　飛花數片點床額
眼閱一篇足啓齒　蕩我平生磊塊臆

아름답기는 봄 꽃 같고 변화는 구름 같다든가, 흥미로움이 흡사 사탕수수를 씹는 것과 같다고 평한 것은 그가 이 작품을 얼마나 재미있게 읽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전등신화(剪燈新話)』가 평생의 뭉친 가슴의 불평 덩어리를 씻어내 준다고 한 것은 그가 이 작품을 통해 심적 괴로움을 충분히 씻어낼 수 있었으며 해방감을 느꼈음을 드러낸다. 즉, 김시습이 소설을 통하여 괴로움과 한을 씻고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한 것은 그가 소설이 가진 정서순화의 공리적 효용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김시습이 허구적 문학 작품에 대해 재미와 심리적 정화의 공리적 효용성을 나름대로 가치 있게 인식한 것은 서사문학에 대한 발전적 인식으로 평가 되어도 좋을 듯하며, 이런 의식은 결국 소설『금오신화(金鰲新話)』를 창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88]

즉 위의 자료들을 볼 때 방외인계층으로 분류되는 김시습의 소설관은 소설에 괴이하고 허탄한 말이 등장해도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좋다는 사회교화의 효용론적 관점에서 소설을 긍정하고 있는 교훈적 입장과, 소설을 통하여 괴로움과 한을 씻고 재미와 심리적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정서순화의 공리적 효용성을 통해 소설을 긍정한 심리적 정화의 입장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

88) 이문규,「梅月堂의 文學觀을 통해 본「금오신화」의 기본 意味網」,「선청어문」18권, 서울大學校師範大學國語國敎育科, 1989, p.329.

제4장 결 론

본고에서는 소설사적 암흑기인 고려시대를 지나 15세기에 본격적인 소설이 등장한 이유를 당대의 소설을 담당했던 담당층과 그들이 소설을 보는 시각인 소설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조선전기의 통념으로 여겨진 소설부정론이 긍정적 입장에 대응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 두고[89] 15세기의 고소설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15세기의 고소설의 담당층과 그들의 소설관을 정리해 보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그를 위해 15세기 고소설과 관련된 공적, 사적 문헌 자료인 역사서, 서발, 잡록, 시들을 바탕으로 15세기 소설의 주된 담당층인 군왕과 사대부, 방외인의 입장을 알아보고 그들의 소설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15세기 소설의 담당계층은 군왕계층, 사대부계층 지식인, 방외인계층으로 나뉘며 대부분 한문소양이 있는 남성들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군왕계층은 소설의 창작계층으로 나타난 자료는 드러나지 않음을 볼 때 소설을 주로 독자로서 향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대부계층은 소설을 수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창작의 측면에서도 향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독자의 측면에서는 의정부의 관직자들부터 과거 문제를 출제하는 관리까지 다양한 계층이 나타나며 소설의 창작에서 역시 서발문등에서 다수의 창작활동 자료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방외인계층에서는 창작의 측면에서 「수향기(睡鄕記)와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의 작자인 남효온과 원호가 나타나며, 김시습은 『금오신화(金鰲新話)』의 창작자인 동시에 『전등신화(剪燈新話)』의 독자의 입장에서 『전등신화(剪燈新話)』를 읽고 받은 감동을 상세하게 한시로 피력하였음을 볼 수 있다.

15세기의 소설관에 대해서는 언급했듯이 당시 小說의 雜談 · 雜說을 기록한 가치 없는 글이라는 개념에 따라 15세기 소설관 역시 배격론을 주축으로 하면서 종종 소극적인 옹호론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각 계층의 소설관을 정리하면 군왕의 소설관은 교훈성의 입장, 자취의 입장,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입장에서 소설을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소설의 허구성을 비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편찬을 허락하는 모습이나 불경한 책이라 하더라도 선하고

89) 오춘택, 앞의 논문, p.545.

악하고는 독자에게 달렸으니 보아도 괜찮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을 볼 때 소설에 대해 소극적인 옹호의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정치상황을 참고할 때 소설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의 자료들이 소설 장르 그 자체를 다룬 것으로만 생각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사대부계층의 소설관은 수용과 창작의 측면, 정치적 수단의 입장이 모두 나타난다. 창작의 측면에서는 패설 옹호론인 '기양론(技癢論)이 드러나며 수용의 측면에서는 일장일이(一張一弛), 자취(自取)하기 나름, 박학(博學)의 자료, 용심(用心)이 나타나 전체적으로 '치도(治道)를 위해서라면 골계도 필요하다'라는 소극적인 소설 옹호론의 입장이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왕계층과 같이 소설에 관한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입장이 드러남을 알 수 있는데 사대부계층 내 훈구파와 사림파의 『유양잡조(酉陽雜俎)』와 『필원잡기(筆苑雜記)』에 대한 논의를 볼 수 있다.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대한 논의에서는 사림파의 일원인 김심의 주장을 통해 도학적 견해에 의한 소설 부정론을 볼 수 있지만, 『필원잡기(筆苑雜記)』에 대한 논의에서의 조위는 김심과 같은 사림파의 도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반대로 경세치도를 통해 소설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같은 사림파 사이에서도 소설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나타남을 볼 때, 이러한 자료들은 당대의 훈구파, 사림파의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소설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으로 소설 그 자체를 문학 장르로 삼아 비판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는 당대의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정파와 관계되어 문학을 전개하는 모습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외인(方外人)계층의 소설관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김시습의 소설관은 괴이하고 허탄한 말이 등장해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좋다는 사회교화의 효용론적 관점에서 소설을 긍정하고 있는 교훈적 입장이 드러난다. 또한 소설을 통하여 괴로움과 한을 씻어내고 재미를 느끼며 심리적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정서순화의 공리적 효용성을 통해 소설을 긍정하는 심리적 정화의 입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15세기의 고소설 담당층은 군왕, 훈구파 관료, 사림파 관료 등의 사대부계층의 지식인과 방외인 계층 등 한문소양이 있는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볼 수 있으며, 군왕계층은 독자에 국한되나 사대부계층과 방외인계층은 창작자와 독자층 모두에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소설관은 소

설이 경전과 역사서에 비해 괴탄하고 불경(不經)하니 읽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이 바탕이 되지만 대부분 소극적이긴 하나 소설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소설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치도에 바탕을 두고 의도한 교훈을 끌어내는 도구로 삼는 제한적인 시각으로 소설을 이해한 소극적인 옹호론을 펼쳤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설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옹호하거나 문학 장르로 삼아 비판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점 역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한국고소설 관련 자료집Ⅰ』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고소설과 관련된 제반 문헌 자료들 중 공적, 사적 문헌인 歷史書, 序跋, 雜錄, 詩들을 주로 다루었다. 때문에 다양한 제반 문헌들을 폭넓게 다루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한 문제들은 후고를 기약하기로 하겠다.

참 고 문 헌

간호윤,『韓國 古小說批評 硏究』, 景仁文化社, 2002.
곽정식,『한국 고소설 연구의 시각과 방법』, 신성출판사, 1994.
김경미,『소설의 매혹』, 월인, 2003.
김수중,『고전소설과 문학정신』, 태학사, 2007.
남만성 역,『禮記』, 211편「雜記」下, 평범사, 1985.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한국 고소설관련 자료집Ⅰ』, 태학사, 2001.
우쾌제,『고소설의 탐구』, 국학자료원, 2007.
윤주필,『한국의 방외인문학』, 집문당, 1999.
이문규,『고전소설 비평사론』, 새문사, 2002.
장효현,『한국 고전소설사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조동일,『한국문학통사1』제4판, 지식산업사, 2005.
최운식,『한국 고소설연구』, 보고사, 2004.

간호윤,「조선시대 소설비평 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김광순,「조선조 유학자의 소설관」,『古小說 硏究』1권, 한국고소설학회, 1995.
김근태,「태평광기(太平廣記) 언해본(諺解本)에 삽입된 한시(漢詩)의 기능,『한문고전연구』14권, 한국한문고전학회, 2007.
김대현,「전기소설의 (傳奇小說) 형성과정과『수신기(搜神記)』의 연관성」,『한국한문학연구』21권, 한국한문학회, 1998.
김종철,「조선후기와 애국계몽기의 소설관」,『인문학보』5권, 강릉대 인문과학연구소, 1988.
남상호,「관란 원호의 사상과 선비 정신」,『韓國思想史學』15권, 한국사상사학회, 2000.
문범두,「추강 남효온(南孝溫)의 방외정신(方外精神)과 문학」,『民族文化論叢』20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9.
박경주,「고려후기 문학 담당층의 전개양상과 경기체가 -무신정권기 문인층에서 여말 신흥사대부로의 변화를 중심으로」,『국제어문』25권, 국제어문학회, 2002.
박일용,「조선 후기 소설론의 전개」,『국어국문학』94권, 국어국문학회, 1985.
성현경,「 19세기 조선인의 소설관 」,『冠嶽語文硏究』3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손병국, 「한국설화에 미친 중국설화의 영향 -《유양잡조》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논문집』31권,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3.
송진한, 「朝鮮朝 兩班士大夫層의 小說觀 考察」, 『개신어문연구』제7집, 충북대학교, 1990.
오춘택, 「조선전기의 소설의식」, 『어문논집』23권, 고려대학교국어국문학연구회, 1982.
오춘택, 「조선시대 소설론의 변모과정」, 『성오 소재영 교수 환력기념논총』, 집문당, 1993.
윤성근, 「유학자들의 소설 배격」, 『語文學』25권,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71.
윤재민, 「조선 후기 서사문학사의 시각」,『민족문학사연구』15권, 민족문학사학회, 1999.
이내종, 「太平廣記詳節目錄 攷」, 『論文集』12권, 慶山大學校, 1994.
이문규, 「梅月堂의 文學觀을 통해 본 『금오신화』의 기본 意味網」, 『선청어문』18권, 서울大學校師範大學國語國敎育科, 1989.
이선이, 「초기 자유시 담당층의 정체성 모색과 그 의미 - 김억, 주요한을 중심으로-」, 『국제어문』26권, 국제어문학회, 2002.
장효현, 「조선 후기의 소설론」, 『어문논집』23권, 고려대학교, 1982.
정용수, 「원생몽유록의 문학성과 조선시대 육신(六臣)의 인식」, 『동방한문학』32권, 동방한문학회, 2007.
정출헌, 「판소리 담당층의 변화에 따른 19세기 판소리사와 중고제의 소멸」, 『민족문화연구』31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조태영, 「조선전기 문학관의 역동과 소설비평의 진전 」, 『고전문학연구』26권, 한국고전문학회 , 2004.
조혜란, 「조선조 15세기 서사문학의 구도와 특징 」, 『한국고전연구』5권, 한국고전연구학회, 1999.
최용철, 「명청소설의 동아시아 전파와 교류 - 『전등신화』 - 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13권,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00.
최운식, 「조선시대의 소설관」, 『한국어문교육』3권,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93.
최 웅, 「소설이란 용어의 개념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4권, 서울대학교, 1979.
최현섭, 「金時習의 小說觀 考察」, 『論文集』18권, 仁川敎育大學校, 1984.

<표1. 부 록>

저자	자료명(연도)	출전	분류
실록청(實錄廳)	1404.3.27/1404.4.9/1404.11.1/1408.4.2/1412.8.7/1417.12.20	태종실록(太宗實錄)	역사서(歷史書)
실록청(實錄廳)	1419.12.12/1441.5.18/1441.9.29/1444.6.16/1445.3.30	세종실록(世宗實錄)	
실록청(實錄廳)	1456.2.5/1461.8.27/1462.1.1/1463.5.15/1463.5.16/1463.5.19	세조실록(世祖實錄)	
실록청(實錄廳)	1473.6.6/1477.7.24/1484.5.20/1493.12.24/1493.12.28/1493.12.29	성종실록(成宗實錄)	
서거정(徐居正)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 서(序)(1447)1477	사가집(四佳集) 권4	서발(序跋)
양성지(梁誠之)	동국골계전(東國滑稽傳) 서(序)(1482)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	
강희맹(姜希孟)	골계전(滑稽傳) 서(叙)(1482)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	
서거정(徐居正)	상절태평광기(詳節太平廣記) 서(序)(1462)	사가집(四佳集) 권4	
서거정(徐居正)	목은시정선(牧隱詩精選) 서(序)	목은집(牧隱集) 부록(附錄)	
이승소(李承召)	약태평광기(略太平廣記) 서(序)	삼탄집(三灘集) 권10	
강희맹(姜希孟)	촌담해이(村談解頤) 자서(自序)	촌담해이(村談解頤)	
표연말(表沿沫)	필원잡기(筆苑雜記) 서(序)(1486)	남계집(藍溪集) 권1	
조 위(曹 偉)	필원잡기(筆苑雜記) 서(序)(1487)	매계집(梅溪集) 권4	
이세좌(李世佐)	필원잡기(筆苑雜記) 발(跋)(1487)	정가당본(靜嘉堂本) 대동패림(大東稗林)29	
성 현(成 俔)	촌중비어(村中鄙語) 서(序)(1496)	허백당집(許白堂集)·습유(拾遺) 권7	
정인지(鄭麟之)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권10 100장(章)	잡록(雜錄)
홍귀달(洪貴達)	문안성공비명(文安成公碑銘)(1445)	국조인물고 상(上)	
성 현(成 俔)	*태평광기(太平廣記)	용재총화(溶齋叢話) 지(地)	
조 신(曺 伸)	*패관소설(稗官小說)	유문쇄록(諛聞鎖錄) 권1	
김시습(金時習)	제전등신화후(題剪燈新話後)	매월당전집(梅月堂全集) 권4	시(詩)
김시습(金時習)	제금오신화 이수(題金鰲新話 二首)	매월당전집(梅月堂全集) 권6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교육전공	학 번	20068020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나지영	한문: 羅 知 咏		영문: Na jee-young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모아타운 107동 1604호				
연락처	011-9624-4111		E-MAIL: zelosia@nate.com		
논문제목	한글 : 15세기 고소설의 담당계층과 소설관 영문 : A Study of the People and Views of Classical Novels in the 15th Centur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 년 10 월 24 일

저작자: 나 지 영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